

Good Morning
ASIA



7
2014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9.19~10.4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10.18~10.24



&

굿모닝
인천
Good Morning
INCHEON

2014

7





햇살, 들다

녹녹한 날이 계속됩니다.

오랜만에 햇살이 반짝 들었습니다.

이 골목에 스민 햇살은 젖어 버린 ‘희망’을 말려 줍니다.

페이지에는 빗물만큼 눈물도 배어 있습니다.

저 햇별….

선탄하는 바닷가뿐만 아니라

이 골목에도 오래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 남구 용현동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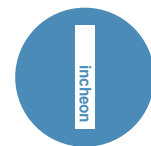
글 · 사진 유동현 본지편집장

굿모닝인천(goodmorning.incheon.go.kr)은,
‘인천시미디어’ 앱, 소셜웹(social.incheon.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은 허락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인천광역시의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굿모닝인천은 무료로 배부합니다.

구독문의 032-440-8306

(해외에 있는 친지에게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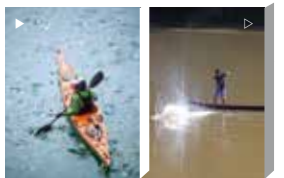
- 06 **민선 6기 열다** 유정복 시장 취임
- 10 유정복 시장이 걸어 온 길
- 12 ‘희망인천’ 여는 주요 공약
- 14 **Summer Story** 바다에서 休&樂
인천 섬 여행 버킷리스트
- 24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 26 **Culture Info**
- 28 **내 길 내 일** 드러머 정재형
- 30 **News Brief** ‘아암 물류단지’ 조성사업 본격화 외
- 34 **의정뉴스** 제 7대 인천광역시의회
- 36 **‘인천공보’로 본 60년 전 인천** 국문교육
- 38 **생활정보** 미추홀도서관 문화행사 외
- 41 **모닝커피 한잔** 박형식 인천한누리학교 교장
- 42 **2015 세계 책의 수도, 인천** 기억을 걷다 3.8km 외

발행처 인천광역시 발행일 2014년 7월 7일 발행인 인천광역시장 편집인
대변인 편집장 유동현(미디어팀장) 취재 편집위원 이용남 / 편집위원 정경
숙 / 편집위원 김윤경 사진 김보섭 · 정정호 · 홍승훈 · 유창호(자유사진가),
심영보 · 하창원(시 대변인실) 행정간행물 등록번호 62800000-84900-
42-81 편집디자인 인쇄 웨스트코(주)

이천십사년 칠월
Incheon monthly magazine
Vol.247

contents

- 45. 2014 Great Asia 로(路)드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
- 49. 에티켓
식사 에티켓
- 50. 2014 인천AG
‘안전’ 세계 신기록 대회준비
- 53. 북한 선수단 참가
14개 종목에 150명 참석
- 54. 나라별 풍습으로 알아보는 아시아
요르단
- 56. 하나되는 아시아
더 높이 날아라~ 종이비행기야 외
- 58. Asiad News
2014 인천AG ‘금·은·동’을 공개합니다 외



표지이야기

▶ 2014년 7월 1일, 인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인천광역시 민선 6기 출범. 안전한 도시, 깨끗한 도시, 부자 도시 그래서 인천시민 모두 행복한 ‘희망인천’을 만들겠습니다. 그 길에 거친 파도가 일지라도 결코 멈추지 않겠습니다. 새로운 인천의 미래, 300만 인천시민이 함께하기에 더욱 확실합니다.

사진은 황해국제요트대회

▷ 국적은 달라도 우리는 하나!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통해 40억 아시아인들이 하나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와 문화,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아시아’라는 이름으로 완성될 새로운 희망의 이야기를 기대해 봅니다.

사진은 라오스의 르왕프라방

@120incheon

시민께서 인천시 종합민원센터인 미추홀콜센터의 트위터(@120incheon)를 통해 문의한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인천시는 시민 여러분이 하시는 말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79살, 쪽방촌에 사는 노인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데도 시에서 집수리를 해주나요?

사랑의 집고치기 사업의 대상자는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계층입니다. 거주지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자원봉사자들이 불시에 현장을 확인한 후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평일 거주지 주민센터 및 인천 자원봉사센터(423-0944, 422-24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잘 치르려면 홍보에만 집중하지 말고, 무단투기하는 쓰레기 먼저 해결해 주세요. 예전에도 제보했지만 변한 건 아무것도 없네요. 부평구 광장로 14번길을 한번 확인해 주세요.

말씀하신 내용은 부평구청 당직실(509-6222)로 전달했습니다. 더불어 지난번 같은 내용으로 민원을 접수했으나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점도 함께 전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는 미추홀콜센터가 되겠습니다.

14번 버스의 막차 출발 시간이 언제인가요.

14번 버스의 마지막 차는 종점에서 12시에 출발합니다. 막차 시간은 미추홀콜센터(032-120)로 전화 또는 문자주시면 빠르게 안내해 드리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노력하는 미추홀콜센터가 되겠습니다.

인천 통통(通通)

인천은 '통통'합니다.
시민과 통하고 세상과 통합니다.
인천이 궁금하시다면
인천시 미디어와
인천시 SNS와 통하세요.
인천시는 시민여러분을 향해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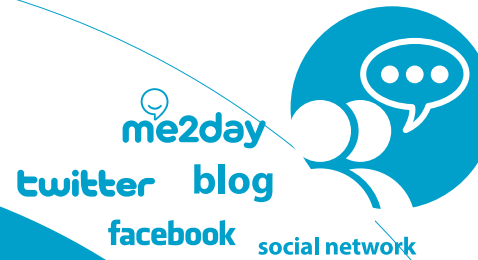


인천시 미디어

시정소식지 **굿모닝인천** (goodmorning.incheon.go.kr)
인터넷방송 **민트TV** (tv.incheon.go.kr)
인터넷신문 **I - View** (enews.incheon.go.kr)
스마트폰 앱 **인천시 미디어** (smart.incheon.go.kr)

인천시 SNS

소셜웹 (social.incheon.go.kr)
트위터 (twitter.com/smartincheon)
미투데이 (me2day.net/incheon4u)
페이스북 (facebook.com/visionincheon)
블로그 (incheonblog.kr)



나는 굿모닝인천 마니아!

'굿모닝인천' 독자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래된 벗, 나의 인천

독자 이효진(26 · 남동구 논현동)



이효진님은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바다가 훤히 보이는 사무실에서 근무 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는 효진씨. 늘 바다와 함께 지내 온 효진씨에게 인천은 친구이자 가족입니다.

내게 있어 인천은 초등학교 시절 부산에서 인천으로 이사 와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바다를 품은 도시에 애정이 각별합니다. 바다는 제게 있어서 오랜 친구와 같습니다. 바쁜 도심생활 속에서 잠시 기대어 쉴 수 있는 바다가 곁에 있어서 행복합니다.

'굿모닝 인천'과의 인연 출퇴근길에 역 플랫폼에 비치되어 있는 '굿모닝 인천'을 처음 접했습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빼놓지 않고 구독하고 있습니다. 매달 인천 곳곳의 소식과 사람들의 소소한 이야기를 접하며, 인천에 대한 애정이 점차 커져갑니다. 더욱 따뜻하고 포근한 인천시민의 목소리를 기대해 봅니다.

인천에 하고 싶은 말 인천은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입니다. 역사가 담긴 유적지와 높게 솟은 현대적 빌딩들이 서로 어우러져 인천의 독특한 색깔을 만들어 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인천의 매력을 함께 알아가고 즐기면 좋겠습니다.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창간부터 지금까지 '굿모닝인천'과 함께 한 독자 여러분을 모십니다. 인터뷰에 참여하신 분께는 작은 선물(온누리상품권 1만원권 3장)을 드립니다.
문의 : 440-8305, goodmorning.incheon.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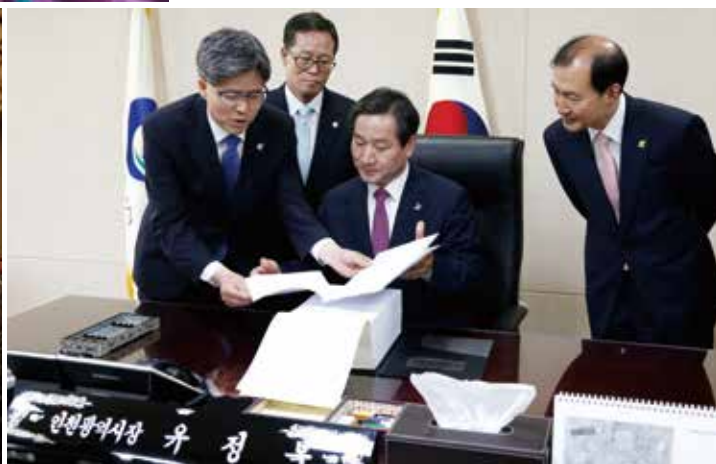
희망인천 시대 열다



희망인천의 뜻이 힘차게 올랐다. 민선 6기 인천을 이끌어 갈 유정복 시장이 7월 1일 취임했다. 지역사회는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던 각종 현안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힘 있는 시장, 지역 출신 첫 시장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감이 자못 크다.

이날 오전 10시 인천종합문예회관에서 각계각층의 인사와 시민 1천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취임식은 '새로운 인천, 행복한 시민'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다. 이는 시민을 중심에 놓고 시정을 펼치겠다는 유 시장의 시정 철학을 반영한 것이다. 유 시장은 노조위원장, 환경미화원, 어린이집원장, 청년서포터즈 등으로 이뤄진 시민대표단과 함께 취임식장에 입장, 시민과 어우러지며 함께하는 시장이 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QR코드를 찍으면
관련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유 시장은 취임사를 통해 “어느 도시보다 풍부한 발전 가능성을 갖고 있는 인천이 도약하지 못하면 국가의 발전도 이를 수 없다.”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인천을 ‘창조도시’로 특화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인천의 발전을 통해 인천시민의 행복을 이루는 것은 물론, 나아가 국가 발전을 선도해 가는 전략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 개최, 시민이 행복한 도시, 공직사회의 혁신, 시민화합 등을 약속하며 위대하고 새로운 인천의 시대를 열어 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취임식은 사회적인 여건과 분위기를 고려하여 조용하고 검소하게 치러졌다. 축하공연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 되어 함께 나아가는 뜻의 의미있는 공연을 선보였다. 발달장애인 청년 예술가들로 이뤄진 ‘꿈꾸는 마을 영종예술단’은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주제가인 ‘온리원’에 맞춰 평강공주와 온달왕자의 춤을 선보여 시민들의 호응을 받았다.

유 시장은 취임식에 앞서 수봉공원 현충탑을 참배한 데 이어, 시청 앞 미래광장에 마련된 세월호 합동분향소를 찾아 묵념하며 희생자의 넋을 기렸다. 그는 이 자리에서 유가족들을 만나 대화하며 위로의 말을 건네고 향후 면담을 약속하기도 했다. 또 취임식을 마친 후 시청 구내식당에서 청원경찰과 방호원, 환경미화원 등 격무부서 직원 50명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며 현장의 고충에 귀 기울였다. 이어 시 노인복지관과 해성보육원을 방문하는 것으로 시장으로서의 첫날 일정을 마무리했다.



송림동 달동네 소년 인천시장 되다

“큰 꿈을 품고 바다로 나갔던 연어가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왔다.”
민선 6기 인천시정을 이끌 유정복 시장은 인천 원도심 중의 하나인 동구 송림동에서 태어났다. 역대 시장들 가운데 인천 출신이 없었기에 유 시장은 인천 출신 첫 시장이라는 기록을 갖게 됐다. 유 시장의 어제와 오늘은 인천과 맞물려 돌아간다.

유정복 시장은 1957년 송림동 수도국산에서 7남매 중 여섯째로 다복한 집에서 태어났다. 그가 태어났던 자리는 현재 도시개발로 사라지고 달동네박물관으로만 남아있다.

그는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송림동 달동네에서 힘들었지만 꿈을 키워왔던 시절이 가장 행복한 기억.”이라고 말한다. 그는 송림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선인중, 계물포고등학교에서도 항상 전교 상위권 성적을 유지할 만큼 공부를 잘하는 아이였다. 초등학교 시절 장래 희망은 외교관이었다. 유 시장은 꿈을 이루고자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입학했지만 공직 진출로 진로를 수정한 후 대학 3년 때인 22세에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유 시장은 1979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1984년 강원도청과 내무부에서 공직자의 길을 걷기 시작한다. 1994년 36세에는 제33대 전국 최연소 김포군수로 1995년에는 37세 최연소로 인천 서구청장을 지냈다. 김포시장 재임시절에 인허가 업무를 통합 처리하는 ‘허가과’를 신설해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송림동 달동네에서
힘들었지만 꿈을 키워왔던 시절이
가장 행복한 기억”



초등학교 시절(오른쪽)



고등학교 시절
(앞은 사람 중 오른쪽에서 2번째)



군장교 근무 시절(왼쪽 손든 사람)

유 시장은 김포시장 3선에 실패하자 국회의원에 도전한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김포지역 국회의원으로 당선됐고 이후 내리 3선에 성공했다. 초선의원이었던 17대 국회의원시절 국정감사 우수의원(2004), 입법 활동과 출석률 등 종합평가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후 3선 국회의원으로 농림수산물부, 안전행정부 장관을 역임하면서 ‘행정의 달인’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농림수산물부 장관시절 발생한 구제역 때에는 장관실에 야전침대를 갖다놓고 24시간 진두지휘했고 사태수습 후에는 ‘구제역백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인천시민들은 30년 행정 경험으로 말단 실무부터 예산 확보까지 시정 전 분야를 상세하게 알고 있는 그에게 ‘경제가 살아나는 인천, 교육 안전 일류도시, 삶이 풍요로운 인천’을 기대하고 희망한다.

유 시장은 자신의 고향이자 뿌리인 인천을 동북아 최고의 창조도시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정치적인 목적을 앞세우지 않고 늘 시민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시장이 돼, 300만 인천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 그동안 성원해 준 모든 시민들에게 감사하며 시정에 헌신하겠다.”는 말로 포부를 밝혔다. 민선 6기 인천시장 유정복, 그는 지금 ‘희망인천’을 만들기 위해 신발끈을 고쳐 매고 인천시민과 함께 땀 준비를 마쳤다.



유정복의 ‘인천희망’ 완전정복 시작되다

‘희망인천’이라는 새 이름을 달고 민선 6기 인천시정이 출범했다. ‘희망인천’호는 무한한 잠재력을 품은 인천의 발전을 위해, 보여주기식 개발이 아닌 도시의 가치 상승과 균형 발전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보인다.

민선 6기는 인천을 부채도시라는 오명을 씻은 부자도시로 만들고, 부정부패를 없애는 시스템을 마련해 깨끗하고 청렴한 도시로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다. 또한 체계적인 교통 인프라를 구축해 인천을 변방이 아닌 중심도시로 만든다는 포부다. 이를 위해 인천발 KTX노선을 신설하고, 서해와 동해를 잇는 인천~강릉 고속화철도를 만들며, 경인전철 지하화와 연계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건설 등을 추진한다. 인천 KTX 시대가 열리면 인천에서 대전까지 1시간, 광주는 2시간, 부산도 2시간 대로 갈 수 있어 인천이 교통의 중심지로 떠오르게 된다. 최고의 안전도시를 구현하고, 시민들과 함께 ‘세계가 꿈꾸는 창조도시’를 만들겠다는 야심찬 각오가 희망 인천이 전하는 핵심 메시지다.

인천 KTX시대 개막

- 인천→대전 1시간, 인천→광주 2시간, 인천→부산 2시간 대 (수인선 활용, 국비 1천5백억원 지원 만으로 가능)
-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 경인전철 지하화와 연계한 GTX 추진(인천→서울역 25분)
- 인천→강릉간 고속화철도 건설(수인선 활용 전액 국비사업)
- 제3연륙교 조기 착공, 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
- 영종→강화 통일대교 건설 추진

교육예산 10% 책정, 수능하위에서 수능 ‘High’시대

- 수능여건 향상을 위한, 교육여건 혁신
- 시 전체 예산의 10%까지 우선 확보
- 인천 특화산업과 연계한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신설
- 장학기금 500억원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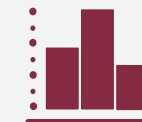


부채도시에서 부자도시로 부정부패 방지시스템 구축

- 부채전담 부시장제 ‘재무개선단’ 운영
- ‘국비확보팀’ 운영으로 중앙정부 예산 대폭 확보
- ‘투자유치단’ 구성, 외자유치를 통한 재정여건 개선
- 비리 공직자에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
- 시민참여 감사제 운영

안전도시 선언, 시민이 행복한 도시

- 최고의 안전도시 구현
 - 행정부시장 직속 안전총괄단 신설, 국제안전도시 인증 취득
 - 안전체험교육관 건립, ICT기술 전국활용 스마트 재난·안전관리 확대
- 인천형보육, 복지시스템 시작
 - 인천형 어린이집 신설
 -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연계한 여성 일자리만들기 추진
 - 노인을 위한 교육·정보·일자리·문화 통합 서비스 제공
 - 장애인 평생교육 기회 제공 및 취업교육 시스템 마련
 - 복지재단 설립, 기금 1천억원 마련



인천 가치 창조, 경제가 살아나는 인천

- 원도심 주민과 함께하는 특성화 개발
 - 도시재생 총괄하는 ‘도시재생사업추진본부’ 구성
 - 지역에 맞는 특성화 전략 수립, 추진
 - 재개발·재건축 지역 재검토 및 매물비용 지원
- 인천 특화산업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
 - 시장 직속 ‘투자 및 기업 유치단’ 구성
 - 산업단지 구조고도화를 통한 공간기능 회복
 - 카지노 기반 복합리조트 활성화(MICE 산업 육성)
-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통한 인천 위상 강화와 시민행복 증진
 -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로 인천의 위상 제고
 - 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및 신설 경기장을 적극 활용하고, 지역명품 스포츠 이벤트 개발
 - 생활체육의 활성화로 시민건강·행복화합 도모
 - 지역의 정체성 살린 인천형 전통문화 창달



여름이 파랗게 익어 가는, 바다 그리고 섬

여름이 파랗게 익어 가면 마음은 어느덧 길을 나선다. 인천 앞바다에서 뱃길로 조금만 가면,
서해라고는 믿기지 않는 고운 물빛이 펼쳐진다. 마치 삼베에 물감이 스미 듯 온 세상에 푸른 물을 퍼트릴 것만 같다.
섬 그리고 바다, 그 안에서는 이 여름이 맑고 깊게 빛난다.

글 정경숙 본지편집위원 사진 정정호 자유사진가



파란하늘과
푸른바다



Healing

바다와 나, 단둘이서

승봉도 · 사승봉도

승봉도는 작아서 더 아름다운 섬이다. 걸어서 섬을 둘러 보는 데 3시간이면 충분하다. 또 천혜의 자연을 품고 있지만 사람들로 북적이지 않아, 느리게 조금은 게으르게 여름날의 여유를 누릴 수 있다. 이 섬의 이일레 해변은 경사가 완만하고 수심이 낮아 온 가족이 함께 물놀이를 즐기기가 좋다. 바닷가를 따라 들어가면 질푸른 소나무숲으로 둘러싸인 승봉삼림욕장이 나온다.

승봉도에서 뱃길로 10분 정도 가면 사람이 살지 않는 섬 사승봉도에 이른다. 사도(砂島)라고도 불리는 이 섬엔 희고 고운 모래사장이 끝없이 펼쳐 있다. 들리는 건 파도소리고 보이는 건 수평선뿐인 섬 안에서, 지친 몸을 쉬고 영혼은 바로 세운다.

Info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승봉도행 패속선(우리고속훼리 www.urief.co.kr, 887-2891~5, 대부해운 www.daebuhw.com, 887-6669)을 탄다. 사승봉도는 승봉도에서 어선을 이용한다. **Enjoy** 이일레 해변, 섬의 유일한 학교 승봉 분교, 섬 속의 섬 목섬과 금섬 **Stay** 최근 섬의 호젓한 정취에 반해 찾아오는 이가 늘어, 펜션형 민박집이 많이 생겼다. 자월면사무소 899-3750

▶ **Another** 이작도에서 가까운 무인도 상·하공경도는 물이 빠지면 섬 전체에 모래사막이 펼쳐진다. 장봉도 앞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 사염, 날가지, 아염이 차례로 떠 있다. 그 중 날가지섬엔 장술해변이 있어 하룻밤 야영할 수도 있다. 선재도 앞 목섬, 무의도 앞 실미도는 물이 빠지면 건널 수 있는 무인도다.



알려지지 않아 더 아름다운

백아도

덕적도 바다에는 굴업도, 문갑도, 울도, 백아도가 보석처럼 뿌려져 있다. 그 가운데 이미 세상에 들려버린 섬도 있지만 아직 비밀스레 아름다움을 숨기고 있는 섬도 있다. 덕적도 남서쪽 바다 고틀머리에 уют이 핀 백아도가 그렇다.

섬은 처연하리만큼 고요하다. 휴가철이 아니더라도 주말이면 사람들로 북적이는 인근 섬과는 사뭇 다르다. TV 프로그램 '1박2일'을 찍으면서 유명세를 타긴 했지만, 아직 사람들의 발길을 모으지는 못했다. 섬은 세 개의 해변을 품고 있다. 섬 가운데 초승달 모양으로 뻗은 긴긴 마을 해변은 갯벌이지만 모래결이 보드랍고 경사가 완만해 물놀이하기 좋다.

Info 패속선을 타고 1시간 정도 후면 덕적도에 도착한다. 이후 덕적도 바다역에서 덕적군도를 잇는 배 나래호를 타고 1시간 30분 정도 걸린다.(고려고속훼리 www.kefship.com, 1577-2891)

Enjoy 전설이 빚어낸 바위섬 선단여, 기차바위, 긴긴 마을 해변 **Stay** 민박집이 네 집 정도 있으며, 섬으로 가기 전에 미리 예약해야 한다. 백아 섬마을 민박 834-7628 덕적면사무소 899-3710



파도소리 들으며 명상 캠핑

자월도

자쫄빛 달빛이 내리는 섬 자월도. 달바위선착장 가까이 있는 장골 해수욕장에는 모래사장이 넓게 펼쳐져 있고 그 뒤로 아름다리 소나무숲이 있다. 숲길 사이로 문득문득 보이는 바다가 두 눈 가득 마음 가득 청량감을 불러 넣는다. 성수기에는 화장실, 샤워실, 개수대 등 편의시설을 운영해 캠핑하기 편하다. 여기서 해안을 하나 돌아가면 큰말 해수욕장이 나온다. 숲은 없지만 경사가 완만하고 모래결이 고와 아이들이 물놀이하기 좋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 텐트 안으로 밀려드는 짝조름한 향. 여름 한가운데 섬 캠핑장에서 보내는 하루, 그날 밤 잠은 깊고 달다.

Info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하루 한번 배가 뜬다. 대부도에서 배를 타고 가는 방법도 있다.(우리고속훼리 www.urief.co.kr, 887-2891~5, 대부해운 www.daebuhw.com, 887-6669) **Enjoy** 장골 해수욕장, 큰마을 해수욕장, 사슴개늪시터, 정상에 오르면 덕적도, 이작도, 승봉도까지 훤히 보이는 국사봉 **Stay** 자월도 민박펜션연합회(jawoldo.org)에서 섬에 있는 펜션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자월면사무소 899-3750

▶ **Another** 무의도 북서쪽에 있는 실미유원지는 수도권에서 가깝고 바다와 숲이 어우러진 최적의 캠핑장이다. 덕적도 서포리 해수욕장의 오토캠핑장은 소나무숲에 둘러싸여 있어 가족 피서지로 제격이다. 이와 함께 시도 수기 해수욕장, 소야도 때부리 해수욕장, 장봉도 웅암·한들·진촌 해수욕장 등에 캠핑장이 있다.





산길 따라 바닷길 따라 백패킹 장봉도

긴 산봉우리가 많아 장봉도라 불린다. 섬 전체 모습도 길게 뻗은 모양새로 산등성이를 따라 길게 이어진 길을 따라 트레킹이나 백패킹(배낭 메고 떠나는 캠핑)을 즐기기에 좋다. 선착장에서 10분 정도 걸으면 웅암 해변이 나오고, 거기서 조금 더 가면 한들 해변, 섬 끝자락으로 가면 진촌 해변에 이른다. 해안 길을 따라 이어진 트레킹 코스에선 산과 바다의 청명함을 한번에 누릴 수 있다. 특히 웅암 해변에서 장봉2리 평촌마을까지 이어지는 길은 기암괴석이 즐비한 해안과 산길이 어우러져 발걸음을 느리게 붙잡는다.

Info 삼목선착장에서 출발해 신도에 들렀다 장봉도로 간다. 약 40여 분이 소요.(세종해운 www.sejonghaeun.com, 751-2211) **Enjoy** 장봉선착장의 인어공주상, 가막머리 낙조 **Stay** 장봉도 여행 안내 사이트(www.jangbongdo.com, www.jangbongdo.info)에서 숙박, 맛집, 교통 등 여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Another 무의도 곁에는 아우섬 소무의도가 있다. 무의도와 소무의도를 잇는 인도교가 놓이고, 섬을 한 바퀴 둘러보는 '무의바다 누리길'이 생기면서 섬 트레킹 명소가 떠올랐다. 덕적도 비조봉을 비롯해 굴업도, 문갑도 등이 백패커들이 즐겨 찾는 트레킹 코스다.



천년 바람 맞으며, 섬 라이딩 강화도

강화는 본섬을 비롯해 석모도, 불음도, 주문도 등 아우 섬들을 아우르고 있다. 섬은 착하기도 하다. 거리가 가깝고 두 개의 다리와 육지로 이어져 있어 어느 때건 마음만 먹으면 달을 수 있다.

발길 달는 곳마다 흐르는 역사도 강화 여행에 의미를 더 한다. 강화에는 광성보, 덕진진, 초지진 등 한민족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마지막 보루 역할을 했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다. 섬에는 지금도 고스란히 남아 있는 그 옛날 성곽과 돈대를 따라 해안 자전거도로가 이어져 있다. 도로는 갑곶돈대 북쪽의 용정리에서 선두리 택지 돈대까지 20km에 걸쳐 이어진다. 길 이 그리 길지 않고 평탄해 천연 바람을 맞으며 두 바퀴로 유유히 달리기 좋다.

Info 강화대교나 초지대교를 건너 강화로 간다. **Enjoy** 동막 해수욕장, 마니산 참성단, 광성보, 덕진진, 초지진, 고려궁지, 율흥궁, 강화산성, 성공회 강화성당 등 역사 교과서 속 유적지 **Stay** 강화도 관광 사이트(tour.ganghwa.incheon.kr)에서 숙박, 교통, 맛집 등 여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032-1330, 932-5464

Another 강화 본섬 외에도 주문도·불음도·교동도 등도 자전거를 타고 달리기 좋다. 주문도·불음도는 강화도 외포리선착장에서 배(삼보해운 www.kangwha-sambo.co.kr 932-6007)를 타고, 교동도는 창후리선착장에서 화개해운(www.hgma.co.kr, 933-4268)을 이용한다. 강화군은 강화도 해안을 일주하는 자전거도로를 계속 조성하고 있다.



물고기 그득한 '큰물'에서 낚시 덕적도

'큰물섬'이라 불리던 덕적도. 소나무숲에 둘러싸인 이 깊은 바다의 큰 섬은 굴업도·문갑도·소야도·울도·백아도 등 낚싯대를 던지면 걸릴 것 같은 작은 섬들을 달고 있다. 이들 섬은 '바다 수족관'이라 할 만큼 입질이 좋아 강태공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여름과 가을에는 놀래미, 광어, 도다리, 송어, 돌돔, 장어가 척척 잡힌다. 낚싯배는 마을마다 대여하는 곳이 많다.

덕적도 서포리 해수욕장은 갯바위 낚시 포인트다. 해안가 방파제와 갯바위에서 낚싯대를 던지지만 하면 제법 큰 물고기가 쏙쏙 올라온다. '손끝 맛'을 만끽하다 썰물 때는 조개 잡는 재미에 흠뻑 빠질 수 있다.

Info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쾌속선(고려고속훼리 www.kefship.com, 1577-2891)을 타고 1시간 정도 가면 덕적도다. 문갑도, 굴업도, 백아도, 지도, 울도에 가려면 덕적도 바다역에서 나래호를 탄다. **Enjoy** 서포리 해수욕장, 능동자갈마당. 덕적도에서 가장 높은 비조봉 **Stay** 해수욕장 주변에 여관이나 민박집이 수두룩하다.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텐트를 치고 야영도 할 수 있다. 덕적면사무소 899-3710

Another 소청도 동남쪽 분바위와 서남쪽 등대는 물 반 고기 반. 참우럭과 농어가 넘치는 소문난 낚시터다. 백아도도 낚싯대만 넣으면 고기가 무는 섬으로 유명하다. 여름에는 우럭과 놀래미가 많이 잡힌다.

볼거리 가득한 삼형제 섬

신도 · 시도 · 모도

신도, 시도, 모도는 북도면에 나란히 떠 있는 형제 같은 섬이다. 세 개의 섬이 손을 잡듯 다리로 이어져 있어 섬과 섬을 자유로이 넘나들 수 있다. 자전거를 빌려 타고 라이딩을 즐겨도 좋다. 두 바퀴로 달리는 길, 해안을 따라 갯벌이 이어지고 그 사이 시골마을의 평화롭고 서정적인 기운이 흐른다.

신도 푸른빛말에 가면 저수지가 펼쳐진다. 잔잔한 수면 위로 나무 데크가 길게 이어져 있고 그 사이 야생화와 수변 식물들이 싱그럽게 자란다. 시도는 드라마 촬영장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지금은 '연인' 세트장만 볼 수 있다. 수기 해변에 있는 드라마 '풀하우스' 세트장은 안타깝게 태풍에 무너지고, 가까이 '슬픈연가' 세트장은 내부공사로 밖에서만 눈에 담을 수 있다.

두 번째 다리를 건너면 모도. 이 섬에는 조각가 이일호의 배미꾸미 조각공원이 있다. 휴머니즘과 에로티즘을 넘나드는 작품이 해변과 어우러져 묘묘한 분위기를 퍼트린다.

Info 영종도 삼목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10분 정도 간다. 세종해운(www.sejonghaeun.com, 884-4155) **Enjoy** 푸른빛말 신도 저수지, 드라마 촬영지와 수기 해변, 배미꾸미 조각공원, 북도양조장 **Stay** 서울에서 한 시간 거리라 관광객이 많아 펜션, 민박집 등 숙박시설이 많다. 북도면사무소 899-3410



인천 섬 여행, 꼭 해야 할 버킷리스트

바다, 파도, 모래사장... 이것이 섬의 다는 아니다. 섬에는 자연이 빚어 놓은 절경이 있고, 초록으로 물결치는 숲이 있다. 신기루처럼 떠오르는 섬 안의 섬도 있다. 365일 가운데 허락된 외출, 마음에 품고 있던 인천 섬 여행 버킷리스트 하나하나 이뤄보기.

글 정경숙 본지편집위원 사진 정정호 자유사진가

1 기차타고 바다를 달려보았나요 용유도 바다열차

기차 타고 바다를 가로질러 섬으로...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린다. 인천공항철도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도심에서 바다 건너 섬으로 가는 열차다. 열차의 종착역인 용유임시역 곁에는 바다가 넘실거린다. 역에 내려 10분 정도 걸으면 작은 포구인 거잠포에 닿는다. 끝없이 펼쳐진 진회색 웅단. 그 위에 바다일을 마친 배들이 지친 몸을 누고 잠을 청하고 있다. 용유임시역 앞에서 버스를 타면 선녀바위, 을왕리, 왕산 해변 등이 단 10분 거리. 걸어도 그리 멀지 않다.

Info 코레일공항철도는 서해바다 열차를 11월 30일까지 운행한다. 하행 열차(서울역→용유임시역)는 오전 7시 39분부터 오후 5시 39분까지 1시간 간격으로 매시 39분에 서울역을 출발하며, 상행열차(용유임시역→서울역)는 오전 9시 27분부터 오후 7시 27분까지 1시간 간격으로 매시 27분에 용유임시역을 출발한다. 코레일 www.korail.com 1544-7788



Bucket list

10

소무의도



2 바닷가 카페에서 차 한잔 어때요 을왕리 카페 '오라'

차를 타고 용유도 을왕리를 달리다 보면 을왕리와 왕산 해수욕장 중간 즈음 언덕에 웅장한 건축물이 시야에 들어온다. 카페 '오라'다. 오라(Ora)는 라틴어로 해변, 해안이라는 뜻. 모던한 디자인에 바다로 향하는 웅장한 건축미가 돋보인다 싶더니, 아니나 다를까 2009년 건축문화대상 우수상을 받았다. 카페 안으로 들어서면 통유리로 된 창으로 바다가 스며들 듯 푸른 물결이 넘실거린다. 테라스로 나가거나 카페 3층에 오르면 시야가 확 트여 바다를 한껏 품을 수 있다.

Info 공항철도 서해바다 열차를 타거나, 자가용을 타고 공항고속도로나 인천대교를 이용한다. 최상급 아라비카 원두를 이용한 커피 한잔에 바다를 품노라면 세상 부러울 게 없다. 카페 오라 www.cafelora.com 752-0888

3 바다누리길을 걸어보았나요 소무의도

무의조무(무의도 호룡곡산과 국사봉에 걸린 아침안개)는 '용유팔경' 가운데 하나일 정도로 절경. 무의도 양쪽에 봉긋 솟은 호룡곡산과 국사봉은 '서해의 알프스'라 불릴 만큼 맑고 푸르다. 곁에는 아우 섬 소무의도가 있다. 섬과 섬을 잇는 인도교가 놓이고, 섬을 한 바퀴 둘러보는 '무의바다누리길'이 생기면서 섬 트레킹 명소로 떠올랐다. 인도교를 지나, 마주보는 길, 떼부리길, 부처개미길, 몽여해변길, 명사의해변길, 해녀섬길, 키작은소나무길 여덟 구간으로 이어지는 길은 어딜 가든 절경. 찬찬히 거닐며 깊고도 청량한 숨을 내쉬어 본다.

Info 잠진도선착장에서 무의도행 배가 30분 간격으로 운항한다.(무의도해운 www.muuido.co.kr 751-3354~6) '콜버스'로 불리는 마을버스를 타고 소무의도 광명항으로 가면 인도교가 나온다.

4 천연풀장에서 망중한 어떤가요 이작도 풀등

자월도 가까이 있는 작은 섬 이작도. 이 섬에는 풀등이라 불리는 모래섬이 있다. 섬은 바닷속에 숨어 있다 하루 두 번 썰물 때가 되어서야 제 속살을 드러낸다. 바다 위 신기루처럼 펼쳐진 금빛 웅단과 사방에 넘실거리는 푸른 물결은 신비롭기 그지없다. 파도가 쓰다듬고 간 모래는 푹신푹신해 걷기 좋다. 살금살금 보들보들 발끝에서 전해지는 모래의 감촉을 느끼며 거닐어 본다. 바닷물이 빠지고 작은 웅덩이에 물이 고이면 천연풀장이 생긴다. 그 안에 몸을 담고 망중한을 즐기노라면 육지에서의 일상이 까마득히 잊혀져 간다.

Info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쾌속선을 타고 대이작도로 간 후 풀등으로 간다.(우리고속훼리 www.urief.co.kr 887-2891~5, 대부해운 www.daebuhw.com 886-6669)



카페 '오라'



풀등

5 바닷가 소사나무숲에 안겨보았나요 영흥도 십리포

다리가 놓이면서 섬은 육지가 되고 섬사람은 육지인이 되었다. 섬은 때를 땀지만, 아름다운 자연을 어찌하지는 못했다. 섬의 북쪽 끝에 있는 십리포 해수욕장에는 우리나라에서 하나뿐인 바닷가 소사나무 군락지가 병풍처럼 둘러져 있다. 수백 년 된 소사나무 400여 그루가 하늘이 보이지 않을 만큼 짙게 우거져 있다. 그 숲이 날카로운 한여름 땀악별을 견어내고 마음을 선선하게 덮어 준다. 해수욕장에서 국사봉으로 이어진 임도를 따라 가볍게 거닐어 보는 것도 좋다.

Info 사회방조제를 거쳐 대부도를 지나 영흥대교를 건너다. 십리포 해수욕장(www.십리포해수욕장.com 885-6717) **Another** 소나무숲을 곁에 둔 덕적도 서포리 해변은 서해 최고의 바닷가로 손꼽힌다. 간조 시에도 물이 거의 빠지지 않고 갯벌이 드러나지 않아 산림욕을 하면서 바다의 정취를 누릴 수 있다. 서포리 해수욕장 899-3717

영흥도 십리포

6 바다 걸어 섬으로 간 적 있나요 소야도 바닷길

하루 두 번, 세상을 향해 품을 활짝 여는 섬이 있다. 덕적도 가까이에 있는 소야도는 모세의 기적이 일어나는 신비의 섬이다. 소야도와 간대섬 사이 500m, 간대섬과 물푸레섬 사이 800m, 소야도와 뒷목섬 사이 200m 구간에 바다갈라짐 현상이 나타난다. 이 일대 신비의 바닷길은 여러 개의 섬을 하나로 연결해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장관을 연출한다. 그 길 따라 걷는 길, 마음은 이미 바다 한가운데 있는데 발걸음은 더디기만 하다.

Info 연안부두에서 1시간 정도 패속선을 타고 덕적도 바다역으로 간다.(우리고속훼리 www.urief.co.kr 887-2891~5) 소야도는 덕적도와 배로 5분 거리에 있다. 간조시간은 국립해양조사원(www.khoa.go.kr 051-440-4400)에서 확인한다. **Another** 무의도 북서쪽 실미해변에서 하루 두 번 바닷길이 열리면, 실미도까지 걸어 들어갈 수 있다. 용유도 용유해변 앞 조름도도 하루 두 번 바닷길을 연다.

7 붉게 물든 바다를 본 적 있나요 강화도 노을

강화도를 여행하고 있다면 해질 녘에는 장화리 해안에 꼭 달아야 한다. 강화 남단에 자리 잡은 장화리의 노을은 유난히 붉고 눈부시다. 노을 때문에 생긴 카페도 적지 않다. 뜨겁게 세상을 달구던 태양이 부서져 내리면 하늘도 바다도 사람도 모두 붉게 붉게 물든다. 강화 곁에 있는 석모도 낙조도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외포리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10분 정도 가면 석모도에 이른다. 바다가 몸을 식히려 할 즈음 젖어드는 낙조가 마음에 기나긴 여운을 남긴다.

Info 강화도는 강화대교나 초지대교를 건너간다. 석모도에 가려면 강화도까지 가 외포리선착장에서 배를 탄다.(삼보해운 www.kangwha-sambo.co.kr 932-6007) **Another** 용유도 을왕리, 강화도 적석사 낙조대, 선재도 목섬, 연수구 아람도 등도 지는 해가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연평도



대청도 모래언덕



강화도

소청도 등대



9 등대에서 바다를 본 적 있나요 소청도 등대

서해바다 끝자락에 도달하였다면, 대청도 가는 길 바로 곁에 있는 소청도에 꼭 들러야 한다. 섬의 서남쪽에는 소청도 등대가 고고히 서 있다. 등대는 1908년 1월 1일 처음 불을 켜 이래, 밤 바닷길로 떠나는 배를 이끌며 어두운 바다를 홀로 지켜왔다. 등대 주변은 낚시터로 유명하다. 한두 시간 낚싯대를 드리우면 농어와 우럭이 쉬지 않고 입질을 한다. 등대에서 바다를 내려다보는 경치도 예쁘다. 화창한 날이면 바다 건너 북한의 웅진반도까지 시선이 닿는다.

Info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패속선을 탄다.(우리고속훼리 www.urief.co.kr 887-2891~5) 소청도 등대 836-3104 **Another** 팔미도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등대가 있다. 106년간 홀로 바다를 비추던 등대는 2009년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팔미도 등대 831-4925

10 섬, 사막 위를 걸어보았나요 대청도 모래언덕

배 타고 네 시간, 검푸른 바다 한가운데 길게 누운 대청도가 모습을 드러낸다. 섬 옥중동해변 옆에는 사막을 옮겨 놓은 듯한 모래언덕 옥중동사구가 있다. 중국에서 날아온 모래가 긴 세월 쌓이면서 길이 1km, 높이 30m에 이르는 거대한 언덕을 이룬 것이다. 이 신비한 모래언덕은 바람결 따라 이리저리 쌓이면서 섬에 하루하루 새로운 풍경을 만들어 낸다. 선진동 선착장에서 북쪽으로 3km 거리에 있다.

Info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패속선을 타면 대청도를 거쳐 백령도에 이른다. 하루 두 번 운행한다.(우리고속훼리 www.urief.co.kr 887-2891~5) **Another** 백령도 사곶해변은 이탈리아 나폴리 해변과 함께 세계에서 두 곳뿐인 천연 비행장이다. 비행기가 오르내리니 자동차로 달린다 해도 모래에 빠질 일이 없다.



QR코드를 찍으면
관련 동영상 볼
수 있습니다.

☆2014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AUG 1-3 @ 송도 달빛축제공원 PENTA PARK
PENTAPORTROCK.COM

Are You ☆
Ready?

비교 불가한 페스티벌이 뜨거운 여름을 뚫고 돌아왔다! 탄탄한 라인업, 쾌적한 장소 그리고 의리 있는 가격으로 무장한 '제9회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이 어김없이 록 음악 팬들을 찾는다. 작렬하는 태양과 땅을 울리는 음악 소리에 맞춰 뒀 준비가 되었는가. 대한민국의 페스티벌의 살아있는 역사,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과 여름을 함께 하자.

글 김윤경 인터넷신문 I-View 편집위원



대한민국 페스티벌의 살아있는 역사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이하 펜타포트)이 페스티벌계의 절대강자로 중무장하고 돌아왔다. 1999년 '트라이포트 락 페스티벌'을 시발점으로 한국에 페스티벌 문화를 선두해 온 펜타포트는 이제 아시아의 대표 록 페스티벌로 성장했다.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페스티벌들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사라져 가는 동안,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은 2013년 8만명이라는 관객입장 기록을 세우며 명성을 지킨 가운데, 2014년 더욱 강력한 라인업으로 돌아왔다. 올해도 어김없이 '의리 있는' 펜타포트가 뜨거운 여름, 자유로운 여름, 하나 되는 여름으로 3일간의 꿈같은 시간을 약속한다.

상상을 초월하는 출연진에 두근두근~!

화려한 출연진에 팬들의 마음이 설렌다. 해외 팀으로는 2000년대 이후 브릿팝계의 최강 밴드를 지키고 있는 '카사비안(Kasabian)'이 새 앨범과 함께 6년 만에 한국을 찾고, 2008년 펜타포트에서 처음 소개됐던 브릿팝의 3대 뮤지션 '트래비스(Travis)'도 6년 만에 다시 록 페스티벌 무대에 선다. 또 'The Great Escape' 등의 곡으로 국내에서도 많은 마니아층을 보유하고 있는 '보이 라이크 걸스(Boys Like Girls)'가 첫 내한하며, 하드코어 펑크 메탈의 원조인 '수어사이드 텐던시즈(Suicidal Tendencies)', 2000년대 감성 락밴드 '스타세일러(Starsailor)'가 원년 멤버들과 완전체로 돌아온다. 국내 라인업으로는 발라드에서 록까지 폭넓은 장르적 스펙트럼을 자랑하는 '공연의 신' '이승환'이 작년 들국화에 이어 국내 레전드 뮤지션 자리를 이어간다. 또한 대한민국 헤비메탈의 원조 '크래쉬(Crash)'와 인디의 경계를 넘어선 뛰어난 라이브와 감성적인 음악으로 사랑받는 '여반자카파', 그리고 록과 대중성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는 '로맨틱펀치'와 슈게이징 모던록 밴드 '디어클라우드'가 함께 한다. 또 파워풀한 실력파 밴드 '피아', 장르를 뛰어넘는 음악의 일렉트로닉 팝 듀오 '솔루션스', 대중음악상 최우수상의 실력파 뮤지션 '페퍼톤즈', 라이브의 절대강자 '데이브레이크' 등이 뜨거운 여름을 예고한다.

★ 펜타포트 여기에서 즐긴다

올해 펜타포트의 무대는 '송도 달빛축제공원'이다. 달빛축제공원은 인천지하철 1호선 국제업무지구역에서 500m 거리에 있다. 지하철 1, 2, 7호선에서 연결이 쉽고, 다양한 시내버스와 광역버스를 통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달빛축제공원에는 3천명을 동시 수용할 수 있는 캠핑장과 넉넉한 주차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 의리 있는 가격으로 즐긴다

펜타포트 100여 팀의 모든 무대를 만나볼 수 있는 3일권 가격은 18만7천원. 특히, 조기예매 할인, 펜타마니아 티켓의 이름으로 15~2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인천 시민과 대학생, 군인들에게도 20% 할인된 금액으로 제공한다. 음악 팬들과의 '의리 있는' 가격도 펜타포트만의 매력.



Culture Info				2014. JULY																							
				performance				musical				exhibition				concert				drama							
				performance				musical				exhibition				concert				drama							
				performance				musical				exhibition				concert				drama							
				performance				musical				exhibition				concert				drama							
				performance				musical				exhibition				concert				drama							
				performance				musical				exhibition				concert				drama							
				performance				musical				exhibition				concert				drama							
				performance				musical				exhibition				concert				drama							
				performance				musical				exhibition				concert				drama							
				performance				musical				exhibition				concert				drama							
				performance				musical				exhibition				concert				drama							
				performance				musical				exhibition				concert				drama							
				performance				musical				exhibition				concert				drama							
				performance				musical				exhibition				concert				drama							
				performance				musical				exhibition				concert				drama							
				performance				musical				exhibition				concert				drama							
				performance				musical				exhibition				concert				drama							
				performance				musical				exhibition				concert				drama							
				performance				musical				exhibition				concert				drama							
				performance				musical				exhibition				concert				drama							
				performance				musical				exhibition				concert				drama							
				performance				musical				exhibition				concert				drama							
				performance				musical				exhibition				concert				drama							
				performance				musical				exhibition				concert				drama							
				performance				musical				exhibition				concert				drama							
				performance				musical				exhibition				concert				drama							
				performance				musical				exhibition				concert				drama							
				performance				musical				exhibition				concert				drama							
				performance				musical				exhibition				concert				drama							
				performance				musical				exhibition				concert				drama							
				performance				musical				exhibition				concert				drama							
				performance				musical				exhibition				concert				drama							
				performance				musical				exhibition				concert				drama							
				performance				musical				exhibition				concert				drama							
				performance				musical				exhibition				concert				drama							
				performance				musical				exhibition				concert				drama							
				performance				musical				exhibition				concert				drama							
				performance				musical				exhibition				concert				drama							
				performance				musical				exhibition				concert				drama							
				performance				musical				exhibition				concert				drama							
				performance				musical				exhibition				concert				drama							
				performance				musical				exhibition				concert				drama							
				performance				musical				exhibition				concert				drama							
				performance				musical				exhibition				concert				drama							
				performance				musical				exhibition				concert				drama							
				performance				musical				exhibition				concert				drama							
				performance				musical				exhibition				concert				drama							
				performance				musical				exhibition				concert				drama							
				performance				musical				exhibition				concert				drama							
				performance				musical				exhibition				concert				drama							
				performance				musical				exhibition				concert				drama							
				performance				musical				exhibition				concert				drama							
				performance				musical				exhibition				concert				drama							
				performance				musical				exhibition				concert				drama							
				performance				musical				exhibition				concert				drama							
				performance				musical				exhibition				concert				drama							
				performance				musical				exhibition				concert				drama							
				performance				musical				exhibition				concert				drama							
				performance				musical				exhibition				concert				drama							
				performance				musical				exhibition				concert				drama							
				performance				musical				exhibition				concert				drama							
				performance				musical				exhibition				concert				drama							
				performance				musical																			

그의 드러밍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

글 정경숙 본지편집위원 사진 김보섭 자유사진가



계절이 여름을 향해 내달리는 한가운데, 쏟아지는 드럼소리가 들려온다. 그 역동적인 비트가 이끄는 대로 지하 계단을 내려간다. 중구 신흥동에 있는 한 작은 건물의 지하. 드럼 세트와 타악기가 즐비한 음악연습실 한 가운데 한 남자가 연신 땀을 흘리며 드럼을 두드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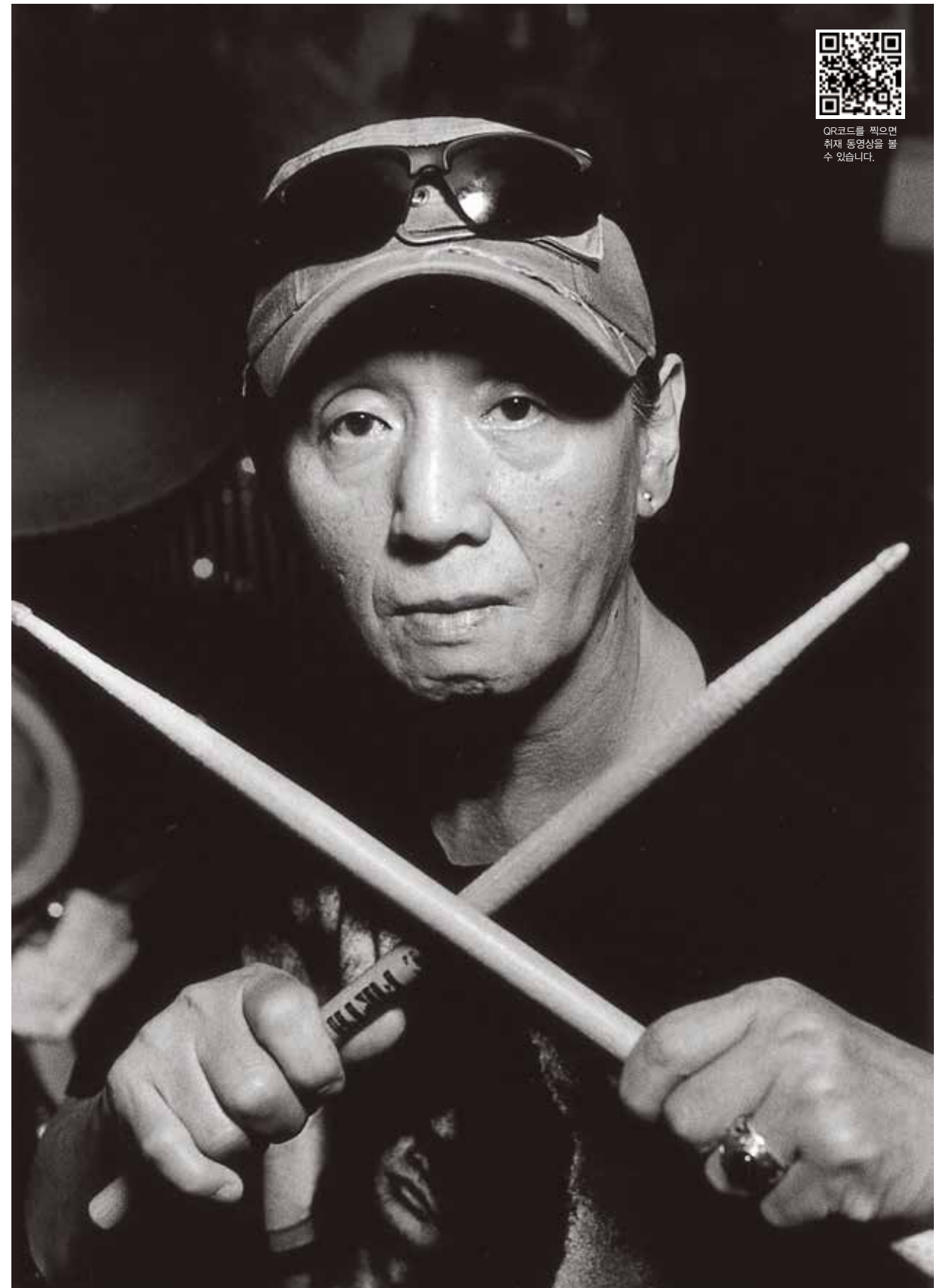
바로 40여 년 넘도록 즐기치게 드럼을 연주해 온 인천 드러머 1세대 정재형(59)이다. 내년이면 환갑의 나이, 하지만 미국의 기타리스트 슬래쉬(Slash)가 새겨진 티셔츠에 질끈 묶은 긴 머리는 자유로운 로큰롤 뮤지션의 모습 그대로다. 몸집은 왜소하지만 다부진 눈빛과 탄탄한 팔에선 관록의 드러머 냄새가 난다.

축현초등학교 밴드부 시절 드러머로 음악을 시작한 정재형은 동산중학교 밴드를 거쳐, 인천의 클럽과 부평 미8군 공연장의 무대에 오르며 본격적인 음악인생을 시작했다. 70년대 당시 피끓는 인천 젊은이들의 아지트였던 신포동 ‘유니온 클럽’과 ‘Key 클럽’, ‘위스키메리 클럽’ 등이 그의 무대였다. 인천항을 통해 들어온 외국 인들과 젊은이들이 이곳에서 그의 음악과 함께 생애 가장 빛나는 시절을 보냈다. ‘올림푸스’, ‘인천회관’, 당시 외국의 뱃사람들이 즐겨 찾던 그리스 바였던 ‘하버라이트(등대경양식)’에서도 그의 드럼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후 그는 서울로 활동무대를 옮기고 ‘사랑과 평화’ 같은 유명밴드의 세션으로 참여하며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혀갔다.

그 긴긴 시간 음악을 놓지 않을 수 있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그는 밴드의 영혼이라 할 수 있는 기타리스트 카를로스 산타나(Carlos Santana)의 말을 인용한다. ‘자신이 가진 능력의 50%만 보여 주는 사람들은 아무 데서도 받아 주지 않는다. 내가 가진 능력의 150%를 발휘해야 한다. 그건 지금 무엇을 하든 또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 항상 똑같다.’ 그는 과거에도 지금도 그러하듯, 앞으로도 죽는 날까지 드럼스틱을 놓지 않고 연습하고 또 연습할 거라고 했다.

4년 전에는 그의 음악적 열정이 꿈틀거리고 뮤지션의 꿈으로 피어난 인천에 드럼연습실을 열었다. 후배들을 이끌어 7,80년대 록음악으로 뜨거웠던 인천에 다시 음악의 불을 지피고 싶어서다. 며칠 후면 무대를 갖추고 밴드공연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연습실을 옮긴다며, 그는 활짝 웃었다.

“제 평생 드럼을 연주했고, 후회는 없습니다. 드럼의 강렬한 비트가 처음 심장을 두드렸을 때처럼, 앞으로도 음악은 내 인생의 한가운데서 버티고 있을 겁니다.” 60에 가까운 나이이지만 그는 여전히 젊음이 충만한 음악을 한다. 드러머 정재형. 그의 음악인생은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QR코드를 찍으면
취재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News Brief

‘아암 물류단지’ 조성사업 본격화

송도국제도시 9공구의 아암물류단지 개발사업이 본격화된다. 경제자유구역청은 아암물류단지 실시계획 승인과 관련, 현재 진행 중인 군부대 등의 관계기관과 협의가 끝나는 이달 중에 실시계획을 승인할 방침이다. 아암물류단지 조성사업은 완충녹지 폭 규모와 향운·연안아파트 이주 부지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행정절차가 지연되면서 그동안 공사를 추진하지 못했다. 아암물류단지 조성 규모는 총 262만5천730㎡이다. 상업업무시설 용지(25만2천903㎡), 연구시설 용지(14만3천779㎡), 물류시설 용지(114만4천465㎡), 주상복합 용지(5만4천550㎡), 도로·공원·공공청사 등 공공기반시설 용지(108만4천584㎡) 등으로 구성된다. 물류단지 남측 공원 안에 위치할 향운·연안아파트 이주 부지는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450% 이하로 1천650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사업시행자인 인천항만공사(IPA)는 실시계획이 승인되면 기반시설 공사를 발주, 올 하반기 중 1단계 부지조성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문의 : 경제자유구역청 ☎453-7544

클릭하면, IFEZ 맛집정보 한눈에

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송도·영종·청라지역 관광·맛집 블로그를 개설했다. 블로그는 경제자유구역 내 관광시설과 맛집을 연계하고, 스마트폰 시대에 발맞춰 언제 어디서든 필요 시 볼거리와 먹거리를 검색,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작됐다. 관광·맛집 블로그 주소는 blog.naver.com/ifezcity이며, 포털사이트에서 설문조사 결과 선정된 블로그 명칭 'IFEZINE(아이페즈인)'을 입력하면 검색이 가능하다. 블로그 명칭 'IFEZINE'은 'IFEZ 인(인천경제자유구역 사람)', 'IFEZ IN(인천경제자유구역 안)' 그리고 'IFEZ + Magazine(인천경제자유구역 매거진)' 의미를 포함한다.

문의 : 경제자유구역청 ☎453-7942



송도, 테마공원으로 푸르게 푸르게

송도에 올 연말까지 한국 전통 정원 등 공원 특성에 맞는 테마공원 세 곳이 조성된다. 경제자유구역청은 총 486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송도 23호 근린공원, 송도누리공원, 24호 근린공원의 조성을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12만㎡ 규모의 23호 근린공원은 숲이 우거진 공간 속에 국제 수준의 대공원이 가능한 야외 공연장을 비롯해 테마존, 방음동산, 진입광장, 생태 숲 등이 조성된다. 4개 지구로 나뉘 총 24만㎡ 규모로 조성하는 송도누리공원은 올해 1단계로 4만1천㎡를 한국의 전통 정원 개념으로 만든다. 또 바다와 인접한 곳에 자리한 23만7천㎡ 규모의 24호 공원은 숲과 바다를 테마로 한 해안 산책 및 캠핑을 소재로 오토캠핑장, 카페테리아 등이 들어선다.

문의 : 경제자유구역청 ☎453-7255

시민안전, 체험으로 습득하세요

우리시가 송도국제도시에 시민안전체험관 건립을 추진한다. 시는 2018년까지 340억원을 들여 연수구 송도동 송도누리공원에 지하 1층, 지상 4층, 전체 넓이 7천110㎡ 규모로 시민안전체험관을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체험관에는 지진·태풍·화재·해양안전 체험관, 소방시설 실습실, 응급처치 실습실, 4D 영상관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전국적으로 서울·대구 등 5곳에서 안전체험관이 운영되고 있고, 부산과 충남이 체험관을 건립 중이지만 인천에는 안전체험 시설이 없었다.

문의 : 시 안전총괄과 ☎458-7271

콜택시 필요하면, 전국 어디서나 '1333'

전국 어디서나 하나의 번호 '1333'으로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이달부터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택시 통합콜센터를 구축해 7월 1일부터 이용자가 인천·대전·대구에서 전화로 '1333'만 누르면 택시를 부를 수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이들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내년 초 서울시와 부산, 광주, 울산 등 다른 광역시까지 사업을 확대한다. 2016년부터는 시·도 단위까지 포함한 전국 모든 지역에서 단일 콜택시 번호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가 스마트폰으로 통합콜센터로 전화하면 위치 좌표를 파악해 가까운 곳에 택시가 있는 콜택시 사업자와 자동 연결되는 시스템이다. 전용 스마트폰 앱을 쓰면 상담원과 통화할 필요도 없이 택시를 부를 수 있다.

문의 : 시 대중교통과 ☎440-3823



News Brief

월미공원 야영장에서 '힐링'

서부공원사업소는 8월까지 월미공원 전망대 주변에 '가족 힐링 야영장'을 운영한다. 야영 체험은 1일 14팀 이내이며 야영도구는 개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캠핑용 버너 외에 다른 취사도구는 사용할 수 없으며 반려동물도 허용되지 않는다. 월미공원은 전통가옥·정원, 전망대 등이 있어 가족 나들이에 좋고 특히 인천 앞바다가 내려다보여 바다의 야경도 감상할 수 있다. 야영 체험 신청은 8월 27일까지이며, 신청서는 서부공원사업소 홈페이지(wolmi.incheon.go.kr)에서 내려받아 작성해 팩스(☎440-8821)로 보낸 후 전화(☎440-5924)로 확인해야 한다.

문의 : 서부공원사업소 ☎440-5924



송도2동 노외주차장 무료 개방

경제자유구역청은 시민들의 주차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와 송도2동 주민자치센터 옆 NSIC 소유 총 106면의 노외주차장에 대한 무상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5월 30일부터 무료개방하고 있다. 1공구 D5-1블록 주차장은 주차전용 건축물 용도로 NSIC가 향후 주차장 사업자에게 토지매각하기 전까지는 한동안 내대지 상태로 방치할 예정이었으나, 인근 시민들의 주차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NSIC가 임시 주차장을 조성, 시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곳은 지난해 6월 송도2동 주민자치센터 개소, 지난해 8월 NC큐브 오픈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방문객, 쇼핑객들이 대폭 늘어 주말의 경우 도로변 불법주차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이 많은 지역이다.

문의 : 경제자유구역청 ☎453-7842



송도, 스피드 레이싱으로 들썩

2014시즌 '코리아스피드페스티벌' 개막 경기가 이달 4일부터 6일 송도국제도시에서 펼쳐진다. 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도시공사, 현대자동차(주)와 함께 종합 자동차 문화축제인 '더 브릴리언트 모터페스티벌'을 개최한다. 행사장은 인천지하철 1호선 국제업무지구 역 일대에 마련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국내 최고 권위의 레이싱 대회인 '코리아스피드 페스티벌'의 2014시즌 개막 라운드가 시가지 경주로 펼쳐진다. 개막 라운드 경주에는 제네시스쿠페, 벨로스터 터보, 아반떼, K3쿵 터보 등 현대-기아차로 구성된 레이싱 카 110여 대가 출전한다. 또 5~6일에는 국내 최정상급 아이돌 그룹과 인디록 밴드 등 아티스트들이 총출동하는 콘서트 무대도 열린다.

문의 : 경제자유구역청 ☎453-7094



버스·지하철·철도, 교통카드 한 장으로~

우리시는 수도권 버스·지하철, 전국 철도와 고속도로를 한 장의 교통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전국호환 교통카드 서비스를 지난 6월 21일부터 시행했다. 전국호환 교통카드는 충전해서 사용하는 선불형 카드로 하이패스 기능여부에 따라 일반형·하이패스형으로 발행하며, 일반형에는 어린이, 청소년, 성인 타입으로 나뉜다. 또 기존 교통카드의 대중교통 환승할인, 택시 등에서의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국호환과 철도·고속도로, 시외·고속버스 등의 기능을 추가한다.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환승카드 사용은 현재 일부 노선에서 시범 운영중으로 연말쯤 전국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전국호환 교통카드 서비스 이후에도 기존 선불교통카드는 2017년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문의 : 시 대중교통과 ☎440-3803



News Brief

인천공항철도 청라역 개통

공항철도 11번째 역인 청라국제도시역이 지난달 21일 개통했다.

검암역에서 공항쪽으로 4.7km 떨어진 청라역은 서구 경서동 신공항고속도로 북인천 나들목 인근에 지상 2층 지상 역사로 지어졌다. 부대시설로 편의점, 수유시설, 222면 규모의 주차장이 있다.

서울~청라역 운임은 1천650원이며, 전체 구간인 서울~인천공항역 운임은 기존과 같은 3천950원이다.

개통을 기념해 청라역 주차장에 3일 이상 주차 시 공항철도 청라~인천공항역 왕복 운임(교통카드 기준 4천600원)을 감면해 주는 할인이벤트를 오는 8월 말까지 진행한다.

청라역 인근에는 해돋이 명소인 정서진과 유람선이 있는 경인아라뱃길 인천터미널이 있다. 새로 개설된 청라역~정서진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 자전거 하이킹도 가능하다. 공항철도는 개통일부터 오는 9월 20일까지 청라역 서편 광장에 자전거 대여소도 임시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770, 904, 904-1, 46, 202의 5개 버스 노선이 청라역을 거친다. 111, 302, 306, 307, 308, 710, 710-1, 202의 8개 노선은 청라역 뒤편 경명대로 정류소에 정차한다.

문의 : 코레일 공항철도 ☎1599-7788



친환경운전 안내장치 달면, 20만원 지원

우리시는 친환경운전 안내장치 부착 활성화를 위해 운전자에게 안내장치 구입비 중 약 2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버스·택시·화물차, 정부기관·공공기관 관용차량으로 환경부 인증 제작사에서 구입비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시는 이달부터 신청을 받아 사업비가 소진될 때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친환경운전 안내장치는 급출발·급제동 때 경보음을 울려 정속주행을 유도하는 장비로 연비를 높이고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가격은 1대당 약 40만원이다. 시는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도시로서 친환경 운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지원 폭을 확대할 방침이다.

문의 : 시 대기보전과 ☎440-3553

올 여름엔 백령도에서 '힐링'여행

인천도시공사와 한국드림관광이 공동 개발한 백령도 관광상품이 한국관광공사에서 처음으로 선정한 '하계 힐링 우수 국내여행상품'에 이름을 올렸다. 백령도 여행상품은 학계, 언론, 관광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으로부터 상품 구성, 고객 편의 등 4개 부문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서해 최북단이면서 북한과의 접경지인 백령도는 남북한 간 긴장감이 도는 곳이지만 천혜의 비경과 종교적·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섬이다.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한국관광 100선에도 올라있다. 선정된 하계 힐링 우수국내여행상품은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kto.visit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인천도시공사는 지난 5월 한국드림관광 등 국내 주요 여행사를 대상으로 백령도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1박 2일 팸투어를 진행, 백령도 성지순례 관광상품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문의 : 시 관광진흥과 ☎440-4052

태양광발전 사업 융자지원 받으세요

우리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자에게 시설 설치 비용을 저금리로 지원한다.

시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이 사업을 위해 에너지 사업기금에서 10억원을 확보했다. 융자 대상은 지난 1월 이후 인천에서 착공해 완공되지 않은 발전시설(설비용량 100kW 이하)이다. 시는 사업자에게 설치비용의 50% 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융자기간은 8년(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이며 금리는 연 1.8%다.

융자 신청은 융자신청서·사업계획서·공사계획서 등 준비서류를 갖춰 오는 11월 30일까지 시 녹색에너지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사업비가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한편 우리시에 허가된 태양광 발전사업은 모두 104곳으로 이 중 설비용량 100kW 이하 시설은 78곳이다.

문의 : 시 녹색에너지정책과 ☎440-4353

규제 신고 온·오프라인 어디서나

우리시는 각종 규제로 말미암은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규제신고소를 개설했다.

인천시 홈페이지를 방문해 '규제개혁 신고'(www.incheon.go.kr/articles/3713)를 클릭하면 규제 애로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고소도 확대, 개설했다. 시 규제개혁추진단에 신고소를 추가 설치해 상담직원을 배치하고, 시민불편 사항 및 기업규제 애로사항을 상담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시 종합민원실과 군·구 민원실 내에도 규제 신고창구를 마련해 시민, 기업이 쉽게 규제 신고를 할 수 있게 했다.

신고된 규제내용은 모두 비공개로 처리되며, 중앙규제는 국무조정실과 중소기업 옴부즈맨을 통해 중앙 소관 부처에서 14일 이내 수용 여부를 통보한다. 자체규제는 소관 부서 검토와 시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해 2주일 이내 수용 여부를 신고인에게 알려준다.

문의 : 시 규제개혁추진단 ☎458-7286



News Brief

'휴띠꼬 2호점' 오픈

우리시는 지난 달 11일 중구문화회관 내 뷰티공동판매숍인 '휴띠꼬 2호점'을 개설했다.

휴띠꼬 2호점은 중국인 관광객 유치 일환으로 지난 2월부터 상설공연 중인 비밥 공연과 인천시 화장품 전문 쇼핑매장인 휴띠꼬를 한 공간에서 제공해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휴띠꼬는 인천시가 중소화장품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공동판매숍으로, 지난 2012년 12월 중구 차이나타운에 개장해 지난해 8억3천500만원의 매출액을 올렸다.

인천뷰티제조업을 지원하고 있는 경제통상진흥원은 휴띠꼬 1호점의 매장 공간 및 주차면적이 협소해 대규모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휴띠꼬 2호점 운영으로 대규모 관광객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는 오는 9월쯤 공동브랜드 리뉴얼 제품 25종을 출시해 판로 개척에 나설 계획이다.

문의 : 시 미래창조정책관 ☎440-3279



싸이의 '행오버' 뮤직비디오 배경은 인천!

지난 달 9일 선보인 가수 싸이의 뮤직비디오 '행오버(Hang Over)'의 촬영지가 인천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다.

'절대적 가치가 있는 5분 영상'이라는 극

찬과 함께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 뮤직비디오는 일주일 만에 6천1백만 건의 조회수를 넘겨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신곡 '행오버'는 미국의 유명 뮤지션 스눕독(Snoop Dogg)이 함께 참여했으며, 스눕독은 이 뮤직비디오 촬영을 위해 지난 1월 내한해 싸이와 함께 인천의 곳곳을 누볐다.

한국의 음주문화를 코믹하게 담아낸 이번 뮤직비디오에는 월미도의 놀이공원, 제물포의 당구장, 송월동의 상가건물 등 인천의 명소가 생생히 담겨있다. 특히, 뮤직비디오의 마지막 장면은 송월동 수협인근 상가건물을 배경으로 했는데, 이 건물은 영화 '숨바꼭질'의 촬영지로도 유명하다. 전 세계적으로 히트한 '강남 스타일'에서는 송도 센트럴파크 주차장과 송도역, '라잇나우(Right Now)'는 송도의 컨벤시아대로 일대가 주요 장소로 등장했다.

문의 : 인천영상위원회 ☎435-7172



여기가 어디일까요~, '송도 꽃길'이랍니다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빨간색 양귀비에 눈이 어지러울 지경이다. 아름다운 풍경을 배경으로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러대는 사람들의 손길이 바쁘다. 아름다운 자태를 한껏 뽐내는 꽃들과 매혹적인 향기로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곳은 바로 송도 국제도시.

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 3교에서 경제청 G타워(커널워크 건너편, 송도동 27, 28번지일대)까지 총길이 1.2km에 달하는 빈터에 시민들을 위한 꽃길을 조성했다. 현재 이곳은 꽃양귀비와 수레국화 100만송이 이상이 만개해 장관을 이루고 있다. 경제청은 이 꽃들이 지고나면 8월부터 백일홍을 파종해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가을에는 코스모스와 다양한 가을꽃으로 시민들의 눈을 즐겁게 할 예정이다.

도심 속에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휴식 공간 '송도 꽃길'은 이제 송도국제도시의 새로운 명소가 되고 있다.

문의 : 경제자유구역청 ☎453-7257



제34회 공예품대전 수상작 선정

우리시는 제34회 인천공예품대전 출품 작품 심사를 실시해 대상을 비롯해 모두 39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인천공예품대전은 우수공예품을 발굴하고 전통공예품의 계승·발전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다.

시는 지난달 19일 교수, 명장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품성, 디자인, 품질, 창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등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결과 대상으로는 강명균(부평구) 작가가 출품한 작품명 '다양성'이 선정됐다.

이번 대전에서 특선이상을 수상한 우수입상작 24작품은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전시되며, 9월 25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44회 대한민국 공예품대전에 인천을 대표해 출품할 예정이다.

문의 : 시 기업지원과 ☎440-4255

제 7대 인천광역시의회

초선 19명,
재선 이상 16명으로 구성

제7대 인천광역시의회가 이달 1일부터 4년간의 임기를 시작했다. 제7대 시의회의 의원 정수는 35명(지역구 31명, 비례대표 4명)으로 제6대의회(38명)보다 의원 정수가 줄었다. 제7대의회 전반기 의장은 노경수 의원, 제1부의장은 박승희 의원, 제2부의장은 이용범 의원을 선출했다. 제7대 의회의 초·재선 구성은 초선 19명, 재선 이상 16명이다. 제7대 의회는 상임위원회 구성과 위원정수가 달라진다.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교육위원회로 구성되고, 위원회 정수는 의회운영위원회를 제외하곤 제6대보다 적은 7명 이내로 정해졌다. 산업위원회는 산업경제위원회로 명칭이 바뀌어 활동한다.



중구 제1선거구
노경수 의원, 의장
(새누리, 64)



중구 제2선거구
김정현 의원
(새누리, 48)



동구 제1선거구
황인성 의원
(새누리, 59)



동구 제2선거구
유일용 의원
(새누리, 59)



남구 제1선거구
최용덕 의원, 교육위원장
(새누리, 55)



남구 제2선거구
이영훈 의원
(새누리, 46)



남구 제3선거구
임진빈 의원
(새누리, 64)



남구 제4선거구
김금용 의원, 건설교통위원장
(새누리, 60)



연수구 제1선거구
정창일 의원
(새누리, 63)



연수구 제2선거구
공병건 의원
(새누리, 48)



연수구 제3선거구
제갈원영 의원
(새누리, 57)



남동구 제1선거구
황흥구 의원
(새누리, 61)



남동구 제2선거구
신영은 의원
(새누리, 64)



남동구 제3선거구
이강호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47)



남동구 제4선거구
박종우 의원
(새누리, 50)



남동구 제5선거구
오흥철 의원, 의회운영위원장
(새누리, 56)



부평구 제1선거구
신은호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59)



부평구 제2선거구
유재홍 의원
(새누리, 42)



부평구 제3선거구
손철운 의원
(새누리, 54)



부평구 제4선거구
차준택 의원, 기획행정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45)



부평구 제5선거구
장현근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53)



계양구 제1선거구
이도형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38)



계양구 제2선거구
조계자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49)



계양구 제3선거구
이용범 의원, 제2부의장
(새정치민주연합, 61)



계양구 제4선거구
이한구 의원, 문화복지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48)



서구 제1 선거구
김진규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48)



서구 제2선거구
구재웅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48)



서구 제3선거구
최석정 의원
(새누리, 53)



서구 제4선거구
박승희 의원, 제1부의장
(새누리, 62)



강화군 선거구
안영수 의원, 산업경제위원장
(새누리, 62)



옹진군 선거구
김경선 의원
(새누리, 62)



비례대표
박영애 의원
(새누리, 57)



비례대표
허준 의원
(새누리, 49)



비례대표
이영환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73)



비례대표
박병만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58)



까막눈 대상 국문교육 실시

6·25 전쟁이 끝난 후 상흔이 아물면서 시 행정도 급속히 안정을 찾아갔다. 인천시는 시민들에게 시 정책과 지역의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1953년(단기 4286년)부터 1961년까지 ‘인천공보(仁川公報)’라는 주간 신문을 발행했다. 어찌 보면 본지 ‘굿모닝인천’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신문을 보면 그 시절의 시 정책은 물론 인천의 사회상과 시민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다. 당시 ‘인천공보’의 기사를 원문 그대로 발췌하되 이해하기 힘든 단어나 문장은 현재 어법에 맞게 고쳐서 매월 이 지면에 게재한다.

정리 유동현 본지면집장

도시대항 청소 경진대회 실시

금번 보건부에서는 공중보건 월간을 설정하고 4대 도시(서울·인천·대구·부산) 대항 청소경진회를 개최하기로 되었다. 국민보건향상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바 이 운동은 청소와 구서(쥐 잡이) 작업으로 구분하여 청소는 주로 환경 위생으로부터 가옥 내외의 청소, 변소 개량, 우물 청소, 하수구 청소, 청소 계몽 등을 실시하리라고 한다. 또한 이 기간은 7월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간이고 구서 작업은 7월 1일부터 말일까지 라고 하는데 이 경진회의 심사는 주로 보건부가 담당하리라 한다. 성적이 우수한 시에 대하여는 우승기와 시상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바 모든 전염병이 창궐하는 하절을 앞두고 일반 국민은 보건 향상에 각별히 유의하여 금번 실시되는 청소 행사에 전적인 협조가 있기를 요망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인천 시에서도 이 계획에 호응하여 각동 대항 청소 및 각 학교(국민학교를 중심으로) 대항 구서 경진회를 개최하리라는 바 일반시민은 우수한 성과를 올려 시민 보건에 많은 공헌이 있기를 바라며 특히 구서는 모든 질병의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서족(쥐) 복멸에 진력하기를 요망하고 있다고 한다. (1953년 7월 1일자)

우물 소독 실시

인천시에서는 하절에 있어 모든 전염병의 창궐을 미연에 방지하여 시민 보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7월 27일부터 7월 29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시내에 산재하고 있는 우물 1천260개소에 시 위생반 전원이 출동하여 ‘크로루 카루키’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하절에 들어선 이때 시민 보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믿어진다 한다. (1953년 7월 29일자)

머리 잘랐다고 꾸지람 듣고 자살한 처녀

처녀의 몸으로 긴 머리를 잘랐다는 부모의 꾸지람 끝에 물에 빠져 자살한 처녀가 있다. 시내 연수동 81번지 강모 씨의 자녀 정희(17)는 부모의 승인 없이 긴 머리를 짧게 자르고 꾸중 아닌 꾸중을 받고 1일 밤 슬며시 집을 나갔는데 익일인 2일 아침 인근의 웅덩이에서 시체를 발견하였다고 한다. (1955년 7월 11일자)

분뇨 수거료 영수증 받고 지불하시오

청소 사무소장은 분뇨 수거 수수료를 지불하면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 달라고 일반 시민에 요청하였다. 소장은 분

뇨 한 지게(한 목로) 당 60환씩인 수수료를 지불한 후 영수증을 주지 않은 경우에는 발부해 줄 것을 요구하여 꼭 받도록 할 것이며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수증을 발부하지 않는 수거원이 있으면 수수료를 지불하지 말아 달라고 신신부탁하였다. 그리고 소장은 한 지게 당 60환을 초과해서 수수료를 요구하는 일이 있을 경우에는 그 마차의 번호와 일자 및 장소를 적어서 청소사무소에 연락하여 주면 엄중한 조치를 하겠다고 부언하였다. 한편 수거를 필요로 할 때는 관할 동사무소나 청소사무소에 연락하여 주면 즉시 수거에 응하겠다고 말하였다. (1955년 7월 11일자)

문화극장 상설로 개관

가설극장 허가 만료로 인해 그간 개축공사 중에 있던 시내 문화극장(금곡동 소재)은 상설극장으로서 신장 완료를 보아 오늘(18일)부터 개관하였다. (1955년 7월 18일자)

너도나도 눈뜬 장님 고치자

인천시교육청에서는 국민학교의 하기 방학을 이용하여 문맹자 퇴치 사업인 국문교육을 실시코자 오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1개월간을 국문교육 실시 강조기간으로 설정하고 지난 13일 상오 10시 30분부터 교육청회의실에서 김정렬 시장, 황광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과장, 시내 국민학교 교감이 참석하여 문맹자들에 대한 국문 교육의 실시 요령, 모집 방법 등을 토의 한 바 있다. 이번 교육을 받을 대상자는 만 12세 이상 만 60세까지의 남녀로 되었는데 50세를 넘는 노령자에게는 교육 방법이 막연함으로 제 2국민병 수첩을 소지하고 있는 만 44세까지의 남녀에 중점을 두어 교육을 실시하되 교육 수준은 국민학교 제 2학년의 국어 과정을 수료함으로써 문맹을 해소케 한다. 포섭 문제 있어서는 종전에는 동이 주체로 되어 문맹자를 조사하였으나 금번 실시되는 기간 중에는 각 국민학교 아동을 통하여 각 가정의 문맹자 유무를 조사하는 동시에 성인교육회에서는 직원을 각 동에 파견하여 반상회를 개최케 하고 문맹자를 선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한다. 그리고 수강시간은 하루 3시간이며 8월 15일에는 개인별



1960년대 초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냉자 장수

성적고사를 실시하고 8월 20일에는 수료식을 거행하리라고 한다. (1955년 7월 18일자)

무허 빙과상, 경찰과 시 합동 취체

인천시 보건과에서는 시민들의 하계 위생과 국민 보건을 위협하는 무허가 빙설업자를 단속하기 위하여 경찰위생반과 합동으로 지난 23일부터 약 15일간 관내 전반에 걸쳐 무허가 빙설업자와 무허가 가두 행상 및 청량음료수 판매자 기타 위생상 유해한 음식물을 판매하는 업자에 대하여 취체(단속)를 단행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에 적발된 업자들은 제품 및 기구를 압수하는 한편 법에 의하여 엄중 처단할 것이며 압수된 제품은 도립 위생시험소의 검사를 받을 것이라고 한다. (1955년 7월 25일자)

〈독자께서 보내 주신 편지〉

‘굿모닝인천’ 5월호에 실린 ‘인천공보’ 1956년 4월 16일자 란에 15명 자식을 둔 장한 어머니에 대한 기사를 보았다. 옛날에 친정 어머니께서 자식을 많이 낳아서 인천시에서 상을 받은 적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그 기사를 주의 깊게 읽었다. 반가운 엄마 이름이 있었다. 이서향(40세, 송현동). 10남매(아들 6명, 딸 4명) 출산 10남매 생존. 어머니는 그 이후 딸을 하나 더 낳아 11남매를 두셨다. 자식이 많아서 한평생 고생만 하시다가 74세에 돌아가신 지 벌써 24년. 살아 계신다면 98세인데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어머니 이름을 접하게 되니 너무 반가웠고 어머니가 새삼 생각이 나며 감회가 새롭다. 나이를 먹어도 어머니가 그리운 건 말로 표현 할 수가 없다. (강혜경, 68세, 동구 송림동)

‘꽃할매’들의 진짜배기 옛날 이야기

‘꽃보다 할배’에 H4가 있다면 북촌예사랑회에는 ‘꽃보다 할매’들이 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게임, 학원공부로 점점 잊혀져가는 우리나라 전통 설화를 들려 주기 위해 할머니들이 직접 나섰다. ‘열두 띠 동물 이야기’는 그 옛날 할머니의 할머니가 들려 주셨던 진짜 배기 옛날이야기로 할머니의 오랜 지혜와 손주들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다. 어머니, 아버지의 어린 시절 할머니가 베갯밑에서 들려 주시던 나지막한 목소리의 옛날이야기를 ‘신나는 예술여행’을 통해 경험하게 될 것이다.

‘신나는 예술여행’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최,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후원으로 문화예술을 쉽게 접하기 어려운 분들 에게 문화예술 향수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 이다.

문의 : 북촌예사랑회, 010-3213-9186

캐나다 밴쿠버에서 ‘제물포 예술제’ 열린다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인천광역시연합회가 주최하고 (사)한국 음악협회 인천광역시지회가 주관하는 ‘제32회 제물포 예술제’가 캐나 다 밴쿠버에서 특별한 만남을 준비한다.

행사명 : 제32회 제물포 예술제(국제교류행사)

행사기관 :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버나비시, 스완가드 스타디 움,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노스 밴쿠버시, 센트럴 극장, 한인회관

행사일시 : 8월 16일~18일(3회 공연)

문의 : 873-5174

우리동네 대기질 앱 서비스

에어코리아(www.airkorea.or.kr)는 우리동네 대기질의 앱 서비스를 출 시했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원하는 시민은 스마트폰 앱 검색에서 ‘우 리동네 대기질’을 다운받아 사용하면 된다.

앱 주요기능 및 설치방법

주요기능

- 사용자 위치 정보를 활용한 현재 지역의 실시간 대기질 정보 제공
- 실시간 대기오염도와 통합대기환경지수를 아이콘과 숫자 형태로 시 간대별 제공
- 사용자 ‘알림’기능 설정 시, 미세먼지 예보나 오존 경보 등이 발령될 경우, 스마트폰 첫 화면에서 해당 정보 미리 공지

설치방법

-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플레이 스토어’에서, 애플 운영체제 ‘앱 스토 어’에서 『우리동네 대기질』 검색 및 다운로드(무료)



2014 사회적기업·협동조합의 날 한마당 개최

매년 7월 첫째주 토요일은 2012년 UN에서 지정한 협 동조합의 날이다. 인천시에 서는 올해 협동조합의 날 을 기념하기 위해 사회적기 업의 날 행사와 더불어 7월 4일(금), 5일(토)에 ‘가족과 함께 웃고, 즐기는 협동조합 인들의 잔치인 축제의 장, 한마당 ~’을 개최했다.

주요행사는 기념식, 생산제 품 전시·판매, 문화공연, 체험이벤트 등으로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에 대한 판로개척과 시민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 했다.

기념식은 사회적 경제 민·관 상생협력 협약식과 축하이벤트 인 대박 터트리기, 사회적기업 성공모델 인증패 수여, 우수 협동조합 표창 등으로 진행됐다. 부대행사로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홍보를 위한 부스 운영, 사회적기업 경진대회, 시민 가족영화 상영, 협동조합 사진전 등이 열렸다. 또 연극과 시 연을 통한 협동조합 체형 퍼포먼스, 사회적기업 성공모델 선 정업체 및 성공기업 대표자의 사례 발표 및 질의·응답시간 인 사회적기업 비전토론회가 있었다.



줌인코리아인천



‘줌인코리아인천’을 검색하세요.

굿모닝인천에 실린 기사들을

‘다음’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모닝커피 한잔

다문화 이웃에,

먼저 인사를 건네 보세요

글 박형식 인천한누리학교 교장

“교장선생님… 사랑합니다.” 사이라(가명)가 기숙사 앞에 서 환한 미소와 함께 건넨 편지에는 “사랑합니다.”라는 글 씨가 비뚤지만 또박또박 쓰여 있었다. 러시아에서 온 학 생이 내게 건넨 소중한 보물이다.

내가 근무하는 곳은 피부색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지만 한 국에 대한 애정과 배움에 대한 열정으로 푹푹 뭉친 다문 화 학생들이 재학 중인 ‘인천한누리학교’다. 전국 최초로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위해 설립한 인천한누리학교는 남동 구 논현동에 있으며, 현재 16개국 학생들이 모여서 생활 하고 있다. 모집 정원은 초등 교육과정 105명, 중학교 교 육과정 60명, 고등학교 교육과정 60명 총 225명이다.

세계 16개국에서 모인 다양한 문화의 학생들을 ‘한국’이라 는 하나의 키워드로 묶는다는 것이 쉽지 않지만, 모든 교 직원이 ‘사랑’이라는 한마음으로 성심껏 노력하기에 오늘 아침 사랑의 편지를 받을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해본다. 돌 이켜보면 지난 1년간 많은 일이 있었다.

그 중 초등학교 1학년 현희(가명)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현희는 엄마가 베트남 사람으로 아침이면 아빠의 손을 꼬 옥 잡고 등교했다. 나는 매일 아침 교문에서 인사 지도를 하며 학생들과 교감을 나누곤 하는 데 현희는 그 가운데 서도 밝은 미소가 예쁜 아이였다. 그러던 어느 날 학생들 의 하교하는 모습을 창문 너머로 바라보며 “현희야 잘가!” 하고 인사를 건넸다. 그랬더니 현희는 갑자기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가방을 열더니 수업시간에 예쁘게 색칠 해 오려둔 앵무새를 꺼내 주었다. 아직 한국어가 서툴러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현희의 눈빛 가득 담겨있는 “감사해요. 좋아요.”라는 ‘마음의 말’이 내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다. 지금도 현희가 고사리 손으로

정성스럽게 그린 앵무새 그림은 교장실 한 곳에 예쁘게 자리 잡고 있다. 몇 달이 지나고 한국말이 늘게 된 현희는 겨울이면 교장실 문을 열고 “교장선생님 춥지요?”하고 인 사도 건네고, 집에서 가져왔다면 맛있는 꿀을 살포시 건 네는 모습에 국적을 뛰어넘는 사제 간의 애틋한 정을 느 낄 수 있었다. 학생들에게 쏟은 관심과 사랑이 부메랑이 되어 다시 내게 돌아오는 이 특별한 경험이 나를 더욱 좋 은 선생님으로 거듭나게 한다.

매일 아침 학교에 출근할 때면 아이들이 건네는 “안녕하 세요?”라는 인사가 얼마나 반갑고 애틋한지. 최근 보건 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다문화가족 비율은 2012년 0.53% 으로 200명 중 1명이 다문화가족에 속한다고 한다. 마트 나 은행, 영화관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흔히 스쳐지나가는 사람들 속에 다문화가족이 존재하는 세상인 것이다. 낯 선 이들에 대한 경계심보다는 일상을 더불어 함께하는 이 웃이라는 마음으로 이들에 대해 너그러운 시선을 갖길 희 망한다. 이 글을 읽는 분들도 곁에 다문화 이웃과 학생들 이 있다면 미소로 인사를 건네 보는 것은 어떨까. 신이 사 랑으로 인간을 만들었듯, 우리도 사랑으로 다문화를 품는 마음을 지녔으면 한다.

인천한누리학교 입학문의 : 442-2102, www.hannuri.icesc.kr

내 가슴에 새긴 한 구절 줄탁동시(倅啄同時)



병아리가 껍질을 쪼는 것을 줄(倅)이라 하고, 어미닭이 쪼는 것을 탁(啄)이라 한다. 안과 밖이 동시에 힘을 기울여 만들어 내야 부화가 가능하 다는 비유에서 나온 고사성어로 가장 이상적인 스승과 제자 사이를 의미한 다. 다문화 학생들을 사랑으로 품어 주고 이들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여 이들의 자질을 계발하고자 노력할 때 이들은 미래의 우리사회의 소중한 글로벌 리더로 자랄 수 있을 것이다. 앞뒤, 좌우에 장애물이 있을 때 망 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줄탁동시(倅啄同時)로 다문화 가 족과 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법을 한번 더 생각해 보자.

추천도서 목록			
서 명	지은이	출판사	책 소개
(10대에게 권하는)인문학	연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글담출판	연세대 인문학연구원 인문학자 5명이 풀어 쓴 최초의 청소년 인문서
위험한 자신감	토마스 차모로 -프레무지크	더퀘스트	현실을 왜곡하는 아찔한 습관
눈치 보며 살기엔 인생이 너무 짧다	박대진	센추리원	삶이 자유로워지는 일곱 가지 조금 다른 생각들!
최고가 되라	에릭 라르센	한빛비즈	당신의 가능성을 폭발시키는 감정의 힘
황제팽권과 함께 한 300일	송인혁, 은유	미래의창	두 발로 걷는 그들이 말없이 가르쳐 준 생의 고귀한 메시지들
생존의 한계	케빈 뫼	어크로스	극한 상황에서 인간은 어디까지 견뎌낼 수 있는가!
부모는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송재환	글담출판	동양고전에서 깨닫는 참된 부모노릇
(우리 아이 말문이 트이는) 하루 5분 영어놀이의 힘	조상은	예담friend	디즈니 만화영화보다 쉽고 재미있는 27개의 영어놀이
내 고향 인천광역시	우태훈	월간문학출판부	우태훈 시집
나는 참 늦북 터졌다	김용택, 이은영, 박덕성	푸른숲	아들과 어머니 그리고 며느리가 함께 쓴 사람 사는 이야기
말하자면 좋은 사람	정이현	마음산책	작가 정이현이 건네는 열한 개의 순간에 대한 이야기
맴헤드	켄 제닝스	글항아리	잡학의 대가가 만난 괴짜 지도관들의 별난 이야기

자료제공 미추홀도서관 ☎440-6656

이달의 인천 향토작가

작가 유보상

1941년 인천 출생.
1967년 동양방송국 개국 제4주년 기념 방송극 '비탈길'이 당선작으로 뽑혔다.
이어서 '연평도'와 '춤추는 허수아비' 등의 드라마를 발표하였고, 1977년 극단 '사계'를 통해 공연으로 발표한 희곡 '이혼파티'가 대한민국 연극제에서 제1회 문화공보부장관상을 수상했다.



내 고향 인천광역시

우태훈 | 월간문학출판부 | 2013

우태훈의 시집 '내 고향 인천광역시'. 2007년 좋은문학 시부문으로 등단한 저자의 다양한 작품을 수록했다. '가싱 나팔 소리가 다양해졌다', '그리운 당신에게', '지리산을 홀로 걸을 때를 생각해 본다', '8월의 장미궁전을 지나면서' 등의 시를 통해 저자의 시적 감성을 엿볼 수 있다.

눈치보며 살기엔 인생이 너무 짧다

박대진 | 센추리원 | 2014

삶이 자유로워질 수 있는 생각을 제시한 책으로, 작은 것에서 삶의 본질적 가치를 찾아내는 독특한 시각을 담아냈다. '우리는 왜 행복하지 못할까'에 대하여 고민한 그는 시선, 선택, 비교, 사소한, 시간, 공간, 결심 등 7가지 키워드를 통해 남의 기준을 따르느라 잊고 살았던 소중한 가치를 되새기도록 이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스스로의 굴레에 묶여 살았는지를 깨닫게 한다.

기억을 집다 3.8km

류재형, 김상태 | 다인아트 | 2014

주인선(朱仁線)은 폐선이다. 지금은 도심 속 녹지공원으로 탈바꿈해 기차 대신 사람들이 그 위를 다닌다. 2005년 폐선된 주인선은 1959년 인천항을 통해 들어오던 주한미군의 화물 수송을 위해 경인전철 주안역과 수인선 남인천역 사이에 부설한 철로다. 인천 현대사의 한 페이지를 담아내기에 충분한 주인선 철로변을 따라 수많은 인간군상이 나고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인천의 철길 시리즈 I 주인선-기억을 집다 3.8km'는 류재형 인천가톨릭대 사진영상과 교수가 사진을 찍고, 김상태 인천사연구소 소장이 글을 썼다. 류 교수와 김 소장은 현재 거의 남아있지 않은 주인선에 대한 기록과 항공촬영 사진 등을 바탕으로 지난 2년여 동안 동행하며 어렵사리 철길의 흔적을 찾아 다녔다. 현장에서 에피소드를 찾아내고, 사진으로 풍경을 담아내면서 책 제목 그대로 '흩어진 철길의 기억들'을 가렸다. 책은 주인선을 9개 구간으로 나눠 구성했다. 철길을 따라 한때 번창했던 개고깃집과 곡물시장, 유곽 옐로하우스의 옛 모습과 현재 모습이 펼쳐진다.



Good Morning



45

2014 Great Asia 로(路)드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

49

에티켓

식사 에티켓

50

2014 인천AG

'안전' 세계 신기록 대회준비

53

북한 선수단 참가

54

나라별 풍습으로 알아보는 아시아

요르단

56

하나되는 아시아

'더 높이 날아라~ 종이비행기야' 외

58

Asiad News

'2014 인천AG 금·은·동을 공개합니다' 외

총 45개국, 1만 3천여 명이 참여하는 아시아 최고의 스포츠 축제,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대한민국 경제수도 인천이 세계의 중심으로 나아가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이번 대회를 기념하기 위해 '굿모닝인천'이 더 큰 세상을 책에 담았습니다. 글로벌 인천에 걸맞은 글로벌 '굿모닝인천'의 글로벌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R e p u b l i c o f I n d o n e s i a

인도네시아의 속살, 족자카르타

파란 인도양에 하얀 진주가 뿌려졌다. 바다에 수를 놓은 듯 섬나라 인도네시아는 자바섬을 중심으로 형성되었고 오늘도 끊임없이 분출하고 움직인다. 그곳에는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가 있고 고도(古都) '족자카르타(Yogyakarta)'가 있다. 과거로의 시간 여행이 가능한 문화 관광지 족자카르타는 자스민 향을 뿜으며 깊은 속을 살며시 내보이고 있다. 족자카르타는 도심의 화려함을 접고 조용하면서도 웅장한 멋과 맛을 뿜어내는 고도(古都)다.

글·사진 김민영 자유기고가

자바섬의 보물 '육작'

일 년 365일, 한여름 날씨인 인도네시아에서 웬 스웨터와 점퍼? 게다가 머리엔 털모자까지. 가만히 있어도 땀이 솟는 한낮에 맞닥트리기엔 조금은 별난 광경이다. 없으면 더 귀하다고 했던가. 겨울이 없는 그들은 겨울을 몹시 동경한다. 남들이 안하는 것을 해야 패션의 완성. 한여름에 즐기는 겨울 패션은 멋쟁이들만이 선뎌는 그들만의 패션 아이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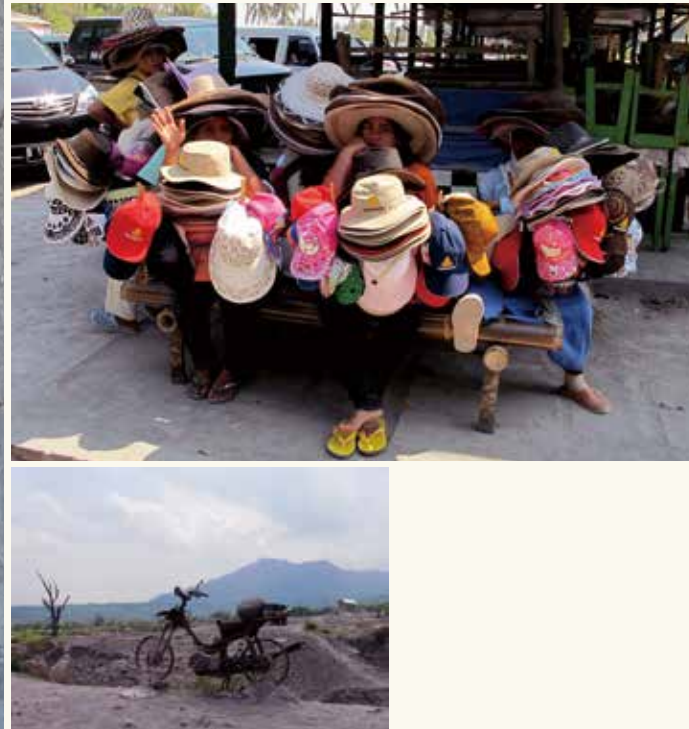
자카르타에서 국내선 가루다항공을 타고 족자카르타를 가다보면 인도네시아의 특징을 한눈에 볼 수 있다. 구름 위로 봉긋봉긋 솟아오른 산봉우리. 울창한 숲 속에서 입을 헤벌린 화산들. '별난' 인도네시아임을 한눈에 느낄 수 있다.

적도의 나라 인도네시아의 공식 이름은 인도네시아공화국(Republic of Indonesia)이다. 뉴기니섬, 보르네오섬,



수마트라섬, 슬라웨시섬, 자바섬 등 5개의 큰 섬으로 이뤄져 있다. 이들을 중심으로 적도 부근에 1만3천670여 개의 크고 작은 섬이 동서로 인도양 푸른 바다 위에 길게 흩어져 있다. 섬으로 시작해 섬으로 완성된 나라다. 그 섬은 모두 살아 움직인다. 아직도 숨을 거칠게 내몰아 쉰다. 인도네시아에는 여전히 수많은 화산이 꿈틀거리며 이글거린다. 수많은 섬의 숫자 만큼이나 다양한 문화와 역사가 화산처럼 거칠게 혹은 코발트 빛 인도양처럼 차분하게 숨을 내신다.

족자카르타를 현지인들은 흔히 '육작'이라 부른다. 처음에 우리가 듣기에는 '육'이란 발음에 좀 거부감이 있지만 엄마의 품처럼 포근한 도시다. '육작'은 우리나라의 고도(古都) 경주와 견줄 수 있는 도시다. '육작'은 왕의 도시였다, 그곳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세계 최대 불교사원인 보로부두르(Borobudur)와 거대 힌두사원인 프



람바난 사원이 있다. 이슬람 교도가 88%를 차지하는 만큼 인도네시아 사원은 거친 듯 섬세하다. 프람바난 사원과 므든트 사원, 빠원 사원도 여행길에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다. 왕궁과 화산까지 흥미로운 ‘육작’의 낮과 밤을 빠짝과 오토바이가 거리를 줄지어 달린다.

화산재 속에 잠들어 있는 도시

보로부두르 사원은 세계 3대 불교 유적 중 하나다.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미얀마의 바간 그리고 이 보로부두르 사원이 그 뒤를 잇는다. ‘산 위의 사원’이란 뜻이 담긴 보로부두르는 한눈에 봐도 웅장하다. 단일 건축물로는 세계 최대다. 이 사원은 8세기 말에서 9세기 초에 이 지역을 지배한 사일렌드 왕조에 의해 건설되었다고 한다.

이 사원은 한동안 ‘빛’을 보지 못했다. 보로부두르는 왕조의 몰락 이후 1006년 거대한 화산 폭발로 인해 긴 세월 화산재 속에 묻혀 있었다. 오랜 시간 잠들어 있었다. 죽은 듯 갯터미에 묻혀 있던 사원은 1814년에 처음으로 발굴되었다. 1973년부터 유네스코가 본격적으로 유적 복구 사업을 시작해 현재에 이른다.

약 100만개의 화산암으로 만들어진 보로부두르 사원은 수많은 탑의 집합체다. 돌 표면에는 부처의 이야기가 새겨져 있다. 위에서 보면 마치 거대한 공룡 알을 깨뜨려 놓은 것 같은 형상이다. 최고 압권은 회랑 벽에 새겨진 부조다. 1천500여 개의 부조들은 하나하나 부처의 행적과 가르침이 담겨 있다. 순서대로 다 보려면 회랑을 따라 시계 방향으로 10회를 돌면서 6층까지 올라가야 한다. 그 거

리가 무려 5km에 달한다. 사원의 석불상 중 일부는 훼손된 채 있다. 화산 폭발로 인한 훼손과 도굴꾼들의 손을 탄 것이다. 태국 왕이 총독을 찾아 왔을 때 사원 장식물을 선물로 준적도 있다고 한다. 2005년도에 사원의 돌부처가 뉴욕 경매 시장에 나온 적이 있다. 즉시 인도네시아 정부가 반환을 요구해 찾아오기도 했다.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큰 힌두교 사원인 프람빠난 사원은 1991년 세계유네스코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최초 발견 당시 약 240개 탑이 있었다고 한다. 지진으로 인해 대부분의 탑이 파손되어 현재는 18개의 탑만 복원된 상태다. 돌에 새겨진 문양을 단서로 해서 퍼즐 맞추듯 돌 하나하나의 짝을 찾으며 쌓아 올리고 있다. 이 사원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힌두사원으로 평가 받고 있다. 이곳에서 맞이하는 일몰은 가히 장관이다.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므든트 사원과 빠원 사원도 빼 놓을 수 없는 문화유산이다. 대나무 숲에 있는 사원이란 뜻의 므든트 사원에는 250년 된 보리수 나무와 10m의 좌불상이 있다. 불교사원으로 8세기 말 경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빠원 사원은 작지만 소박하고 섬세한 멋이 있다.





인도네시아는 오토바이 천국이다. 오토바이들이 줄지어 서 있는 길 사이로 오토바이들이 비집고 다니는 모습

육작에서의 이동수단은 빠짝. 자전거에 2인용 수레를 달고 밧을 낸 빠짝은 둘이 타면 말 그대로 ‘바짝’ 타야할 정도의 크기다. 빠짝은 관광도시 육작에서 삶을 사는 인도네시아인들의 생계 수단이다. 유난히 오토바이가 많은 육작에서 빠짝은 관광객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저렴한 이동수단이다. 빠짝에 몸을 싣고 세계문화유산이 있는 술탄의 왕궁 크라톤(Kraton)으로 간다.

인도네시아는 대통령과 부통령이 있고 16명의 왕이 있는 나라다. 크라톤은 1756년 하멘크 부오노 1세에 의해 지어졌고 그 후 역대 왕족들이 살았다. 지금도 그곳에는 족자의 상징적 왕과 왕족들 그리고 그 친척들이 거주하고 있다. 1천㎡의 대지에 총 2만5천여 명이 살고 있다. 그 안에는 학교와 모스크, 시장과 가게들이 있고 연못과 운하가 많아 ‘물의 궁전’ 이라고 불리는 아름다운 별궁이 있다.

족자카르타에서 30km 떨어진 곳에는 브라빠(2천891m) 산이 있다. 이 산은 2006년 5월 폭발했다. 브라빠 화산의 대폭발로 많은 사원이 파괴되었다. 유구한 역사와 소박한 사람들의 삶이 파괴되었고 현재 그 흔적이 곳곳에 드러나 있다. 인도네시아 곳곳에는 브라빠 화산처럼 언제 어느 때 분출할지 모르는 화산들이 거친 숨을 쉬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정신적 고향, 족자카르타

인도네시아는 섬 국가다. 적도를 중심으로 5개의 큰 섬들과 그 주변에 1만3천여 개의 작은 섬이 동서로 길게 펼쳐져 있다. 다섯 개의 섬은 수마트라, 자바, 칼리만탄, 술라웨시, 이리안 자야로 이루어졌다. 면적은 한반도의 아홉 배, 인구는 2억5천명이다.

가장 큰 섬 자바섬에는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와 문화도시 족자카르타가 있다. 32km²의 넓이에 인구 50만의 작은 도시다. 지금의 공화국이 되기 전까지 자바 지역의 수도였다. 불교와 힌두교가 번성해 고대 문화 유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족자카르타는 인도네시아의 정신적 고향으로 여겨진다. 인도네시아를 430년간 식민 지배한 네덜란드에 맞서 독립전쟁을 펼치던 1945~1949년 이곳은 임시 수도였다.

가루다 항공

도시 곳곳에서는 인도네시아의 국장인 전설 속의 새, ‘가루다’를 볼 수 있다. 목 부위에 45개 돌기가 있고 꼬리에 8개, 날개에는 17개의 깃털이 있다. 이는 ‘1945년 8월 17일’ 인도네시아의 독립기념일을 의미한다.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항공사인 Garuda 항공의 심벌도 이 새를 상징한다.



입천시인 세계시인 에티켓 Etiquette

식사 에티켓



그림. 유환석



‘안전’ 세계신기록대회 준비

요즘 우리 사회의 최대 이슈는 안전이다.

인천시는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를 앞두고 경기장 및 관람객 안전문제에 특별히 신경을 쏟고 있다.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는 무엇보다 안전에 신경을 쓴 ‘안전대회’로 치르겠다는 각오가 크다.

글 이용남 본지편집위원 사진 홍승훈 자유사진가



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안전위해 가변석 빈틈 메우기 공사 진행

우리는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와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를 앞두고 경기장 안전에 세심히 신경 쓰고 있다. 인천시와 대회 조직위원회는 국회 국제경기대회 지원특별위원회에 안전대책을 보고하고 오는 7~8월 경기장, 훈련시설, 선수촌 등 88곳에 대해 집중적으로 안전점검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시는 최근 서구 주경기장 가변석 안전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자 빈틈을 메우는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가변석의 구조적 안전에는 문제가 없지만 틈새로 물건이 빠질 수도 있어 시민들의 불안감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가변 관람석의 뒷면과 옆면 골조가 보이는 부분은 가림막으로 가릴 예정이다. 지난 6월 1일 테스트 이벤트를 통해 안전점검을 마친 결과, 시공 상태에 대한 구조적 안전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유정복 시장은 지난달 17일 당선인의 신분으로 주경기장 가변석을 돌아보고 “임시시설에 초점을 맞춘 것 같다. 근본적인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8월에 완성할 예정인 안전사고 매뉴얼 작성도 대회 관련자들이 매뉴얼을 숙지하고 가상훈련을 해야 하기에 완성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말했다.

시와 조직위는 소방방재청·인천지방검찰청·인천지방경찰청·육군 17사단 등에서 각각 운영하고 있는 아시아경기대회 기획단과 협력체제를 강화, 안전관리에 주력할 계획이다.



소방안전대책

주요 시설 화재, 재난에 대비

인천시 소방안전본부는 소방인력의 현장배치와 특별 경계 근무로 아시아경기대회 안전개최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재난발생 요인을 철저히 예방하고, 지휘체계 확보로 대응능력을 높이며, 유관기관 공조로 안전에 관해선 손색 없이 치르겠다는 각오다.

소방안전본부가 대회 안전과 관련해 직접 책임져야 하는 시설물은 215개 소다. 대회의 안전 차원에서 전문요원 106명이 배치된다. 본부 18명, 소방서 88명이다.

소방안전본부는 대회 기간이 가까워 질수록 안전대책의 강도를 높인다. 7월부터 8월까지의 대회시설의 집중관리 및 대응능력 향상에 최대한 힘을 모은다. 대회 관련 안전점검 및 관리시설은 1천493개 소이고 이중 숙박시설 1천405개 소가 중점 점검대상이다. 대회기간 중 주요시설엔 화재와 재난 예방 차원에서 소방인원을 투입하고, 안전 매뉴얼 3종을 제작 발간해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인다.

아시아경기대회와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가 시작하는 9, 10월에는 특별 경계근무를 실시한다. 9월 5일부터 10월 26일까지 33일간이다. 소방인력 252명과 장비 15대가 경기장 등 현장시설에 투입돼 불시에 일어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처한다.



아시아경기대회 시설은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으로 무장한다. IT 첨단 기술에 스마트폰, GIS 등 멀티미디어를 기반으로 경기장 내외에 실시간 정보를 전송하고 처리하는 등 현장 안전관리의 최적화가 이뤄진다. 이렇게 구축한 통합무선망을 활용해 취약대상 지역의 경우 24시간 화재예방 감시활동이 이뤄진다.

이어 스마트폰을 활용한 통합무선통신체계를 구축해 위급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동시에 여러 사람에게 상황을 전파할 수 있다. 또한 경기장, 선수촌 등 대회 관련 시설 지형을 전산화해 차량이동이나 사람의 움직임까지 확인할 수 있는 GIS(지리정보시스템)시스템을 도입하고, 경기장이 밀집되어 있는 인천지하철 문학경기장역과 선학역에는 119상황실로 자동신고 되는 지능형감시시스템인 복합 화재감지기를 설치한다.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는 첨단 장비와 시스템으로 대회장의 안전관리 요원과 조직위 상황실이 하나가 된다.

선수촌, 경기장

촘촘한 철통경비, 보안 전문가 배치

선수촌을 비롯한 경기장은 촘촘한 철통대책이 마련된다. 유효한 등록증을 소지한 차량만이 보안 검색을 거쳐 출입할 수 있다. 모든 운전자 및 탑승자와 그 소지품은 보안 검색을 거친 후에야 경기장 출입 및 반입이 가능하다. 허가되지 않은 서적, 정치적 또는 종교적인 목적의 시위, 불법 상업활동 등은 이뤄질 수 없고 금지품목은 절대 반입할 수 없다. 무기류, 도검, 폭발물, 향정신성 의약품 등이 대상이다.

대회가 열리는 경기장엔 치안이 철저히 유지된다. 경찰인력을 투입하고 보안 사무소를 곳곳에 설치해 안전문제를 철저히 점검한다. 대회기간 동안 배치된 보안 전문가들은 모든 비상 상황에 대응하고 대처한다.

또한 경기장의 보안과 안전관리 차원에서 대회 곳곳 모든 출입구에 엑스레이 검색대와 보안게이트, 휴대용 탐지기, AD카드 리더기 등을 설치하고 지급한다. 보안 담당자들은 휴대용 탐지기를 이용해 보안검색을 하고,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물건은 철저히 검색해 가려낸다. 개인소지품은 경기장에 입장하기 전에 검색한다.



북한선수단
14개 종목에 150명 참석



북한이 OCA에 제출한 종목별 인원 엔트리

종목	인원 엔트리			종목	인원 엔트리		
	계	남	여		계	남	여
수영	16	2	14	유도	10	4	6
양궁	8	4	4	공수도	5	3	2
육상	4	2	2	조정	8	4	4
복싱	7	4	3	사격	9	3	6
카누	2	2	0	탁구	10	5	5
축구	38	20	18	역도	12	5	7
체조	12	6	6	레슬링	9	6	3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가 북한 선수단의 참가로 남북의 화합과 평화를 여는 대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선중앙통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는 평화와 단합, 친선을 이념으로 하는 아시아올림픽이사회 성원국으로서 오는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남조선 인천에서 진행되는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 조선선수단을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최근 북한은 손광호 NOC(국가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총장 명의로 지난달 10일 OCA(아시아올림픽평의회)에 아시아경기대회 인원 엔트리를 제출했다.

북한이 OCA에 제출한 서한에 첨부된 인원 엔트리는 축구(남·여), 수영, 양궁, 육상, 복싱, 유도, 체조, 사격, 탁구, 역도, 레슬링, 공수도, 카누, 조정 등 14개 종목에 선수 150명(남 70, 여 80명) 규모다.

북한의 인원 엔트리는 지난 2002년 부산아시아경기대회에 축구 등 18개 종목에 참가했던 184명보다 규모는 작지만 추후 최종엔트리가 접수되면 더 늘어날 가능성도 크다.

5월 26일부터 6월 20일까지 인원 엔트리를 접수받은 조직위는 북한이 OCA 45개 회원국 중 이라크에 이어 두 번째로 엔트리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직위 관계자는 “북한은 메달 획득이 가능한 강세 종목을 중심으로 엔트리를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북한을 포함한 45개 회원국은 7월 15일부터 8월 15일 기간 중 명단 엔트리를 제출해 선수단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는 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와 협조해 북한 선수단 참가에 따른 사전 준비와 안전문제, 숙박, 공동응원 등 북한 선수단이 머무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또한 북한 선수단의 참가에 대비해 전지훈련 예산을 이미 확보해 놓은 만큼 앞으로 통일부 승인절차 및 실무 접촉을 통해 북한 선수단의 전지훈련 종목과 인원 등에 대해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요르단

라마단 기간, 해 지면 친지 초대해 식사



글. 피라스 알코파히
(Firas Alcoufahy · 요르단)

라마단은 이슬람의 성인인 무함마드가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서 북쪽으로 18km 정도 떨어진 히라산에서 약 30일간의 수련을 통해 얻은 것을 본받자고 해서 시작됐다. 무함마드가 수련하기 위해 히라산 동굴에 들어갈 때 셋별과 초승달이 떠 있었고 계시를 받고 나왔을 때는 초승달과 셋별이 있어 약 30일을 의미한다. 그때 떠 있었던 셋별과 초승달의 모양은 많은 이슬람 국가의 국기에 들어가 있다.

라마단은 이슬람 신앙에 있어 실천의 다섯 기둥인 샤하-다(신앙의 증언), 쌀라(예배), 자카트(희사), 씨얌(단식), 핫즈(성지순례) 중 하나인 씨얌이다. 무슬림들은 일 년에 한 번 라마단 월에 한 달간 새 벽(파즈르) 예배를 시작하기 전부터 해가 질 때까지 음식과 음료를 금하는 육체적 단식뿐만 아니라 불필요하거나 악한 언행을 삼가는 정신적 단식을 지켜야 한다.

라마단은 세계 어디에 살든 관계없이 모든 무슬림들이 같은 기간에 한 달 동안 지켜야 하는 의무다. 이 기간 단식을 통해 자신의 영적



해가 지기 시작한 암만 구시가지



기도하는 아이



식사 전에 물과 함께
야자대추를 먹는다



라마단 축제 축하카드

성장뿐만 아니라 굶주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 물질의 소중함과 나눔의 기쁨을 느끼게 된다. 단식으로 비움을 수행하면서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올바른 삶을 희망하는 정신적 재무장을 하게 된다.

라마단은 임신부, 병약자, 여행자 등을 제외한 모든 성인 무슬림들이 지켜야 한다. 어린이는 제외하지만 청소년의 경우 희망하면 연장자의 조언하에 무리하지 않게 행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해가 지고 첫 식사 시간이 되면 이웃이나 가까운 친지들을 초대해 함께 식사를 하며 담소를 나눈다. 이러한 초대를 기쁘게 받아들이며 서로 정을 돈독히 하며 경전인 코란을 읽는다.

라마단이 끝난 다음 날에 행하는 축제를 ‘이들 피프르’라고 한다. 전 세계 무슬림들이 라마단을 인내와 절제로 무사히 마친 것에 감사하며 축제예배를 드린다. 또 서로의 집을 방문하거나 평화의 인사와 선물을 교환하며 기쁨을 나눈다. 라마단 기간 동안에 쌓은 인내와 절제, 배려 등 귀하게 얻은 육체적 정신적 경험들은, 다음 해에 돌아오는 라마단 때까지 더욱 강한 신앙심으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

독자가 꾸미는
하나되는
아시아



장원

더 높이 날아라~ 종이비행기야

캄보디아 어느 보육원으로 봉사활동을 하러 가서, 현지 아이들에게 여릴 적 접고 놀았던 종이비행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신나게 뛰노는 아이들의 순수한 모습은 지구촌 어디나 똑같습니다.

허균 계양구 계산로

〈굿모닝인천〉은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잡지입니다.
애정어린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맞아 '아시아'를 주제로 한 사진을 받습니다. 아시아 풍경에 대한 단상, 추억이 담긴 사진과 함께 간단한 사연을 보내 주세요.
※ 채택되신 분께는 은누리상품권(2매, 장원은 3매)을 보내드립니다. 마감은 매월 20일까지입니다. 응모하는 분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해야 접수됩니다.

보내실 곳

우) 405-7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 대변인실 〈굿모닝인천〉독자마당 담당자 앞
홈페이지 : goodmorning.incheon.go.kr
문의 : 440-8305



코끼리 트레킹

태국 여행 중에 스릴 넘치는 코끼리 트레킹을 하였습니다. 코끼리 운전기사 아저씨가 우리 동요 '코끼리 아저씨'를 어찌나 구성지게 부르던지 한동안 배꼽을 잡았답니다. 하지만 사진을 찍기 위해 카메라가 들이대자 언제 그랬느냐는 듯 저렇게 '얼음'이 되었습니다.

박종대 부평구 안남로

중국의 베니스에서 청라국제도시를 보다

중국의 베니스라 불리는 상해의 주자각입니다. 상해의 유명한 관광지 가운데 하나로 드라마 '카인과 아벨'을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운하를 품은 이국적인 풍경을 바라보며, 인천 청라국제도시의 내일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채양석 연수구 먼우금로



오늘도 술술 날아 볼까?

수퍼맨은 세계 어느 나라를 구분하지 않고 날아다니는 모양입니다. 태국 치앙라이 한 가게에서 꼬마 수퍼맨을 만났습니다. 이 아이는 기다란 빨간 망토까지 완벽하게 갖췄습니다. 빨간 팬티도 살짝 보입니다. 아침밥도 먹었겠다 술술 날아갈 준비를 합니다. '아들아, 지구를 부탁하노라'

김호정 남동구 논현동

아이, 과거와 만나다

마치 한 아이가 철창에 갇혀 있는 듯 합니다. 아랍입니다. 요르단의 한 유적지에 안전을 위해 팬스를 쳐놓았는데 한 아이가 유심히 아래를 내려다보는 모습입니다. 미래의 고고학자를 꿈꾸는 지 유적지를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김민겸 남동구 석산로



냉차 한잔 쭈욱~

필리핀 마닐라 시장에서 파인애플로 만든 냉차를 파는 리어카를 보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린 시절에 여름철이 되면 길거리에서 냉차를 많이 팔았습니다. 불량, 부정식품이지만 시원한 맛에 종종 사 먹었던 추억이 있습니다.

정현산 강서구 염창동



파이팅!!!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가 열리면 각국 선수들의 열전이 벌어진다. 현장에서 뛰는 선수는 물론이고 임원진, 관광객들이 자국의 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해 '파이팅'을 외친다. 아시아의 언어로, 선수들의 선전을 위해 외쳐보자, 파이팅!!!

영 어	Go Korea!! 고우 코리아
중 국 어	(한자) 加油! (병음) jiā yóu! 찌야오
일 본 어	韓国(かんこく)(日本:にほん)がんばれ! 캉꼬꾸(니혼), 감바레!
마 인 어	Berusaha 블우사하
베트남어	việt nam cố lên. 벧남 고 뉘
몽 골 어	МОНГОЛ(солонгос) ура! 몽골인(설언거스) 털어
타 이 어	ไทยสู้ สู้! 타이쑤쑤!
라 오 스 어	ລາວສຸສຸ! 라오쑤쑤
크 메 르 어	ក្លែង ស៊ីស៊ី / កម្ពុជា ស៊ីស៊ី 겜루쑤 쑤쑤
방글라데시	বাংলাদেশজিন্দাবাদ। 방라데스 진다바드
우 르 두 어 (파키스탄)	! کوریا (پاکستان) فائٹنگ! 파키스탄 화이팅!



인천AG 세계 홍보 '우리에게 말해요'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는 지난달 11일 아시아경기대회 개최 D-100일을 맞아 제 3기 외국인 블로그 기자단(IG Crew, 이하 크루)의 발대식을 열었다. 외국인으로 구성된 크루는 조직위에서 운영하는 공식 영·중문 블로그에 각국의 스포츠, 문화, 트렌드 등의 기사를 게재하고 SNS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는 등 대회의 정보를 확산하는 역할을 한다. 3기 크루는 29개국 44명으로 총 31개국에서 190여 명이 지원했다.



스마트폰으로 성화봉송에 참여해요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는 역대 아시아경기대회 최초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성화봉송 이벤트인 '스마트 토치 릴레이(Smart Torch Relay)'를 시행했다. 온라인 성화봉송 앱 '스마트 토치 릴레이'는 조직위원장의 최초 점화에 이어 OCA, 대회관계자, 시민 대표 등에게 전달됐다. 스마트 토치 릴레이 앱은 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 4개 언어로 제공하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라인, 웨이보, 웨이신 등 SNS를 통해 전달할 계획이다.



인천AG 선수촌장에 이예리사 선임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선수촌장에 이예리사(60·여)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선임됐다. 국내에서 치르는 아시아경기대회에 선수 출신이 선수촌장을 맡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촌장은 오는 8월 8일부터 10월 7일까지 운영하는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선수촌에서 참가 선수의 안전과 생활을 책임지고, 공식행사 주관, 선수촌 방문 주요 인사의 영접 업무를 맡는다. 이 촌장은 1973년 사라예보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여자단체전 우승의 주역으로, 2004 아테네올림픽 여자탁구 감독, 태릉선수촌장, 대한체육회 상임위원, 대한체육회선수분과위원장 등을 지냈다.

인천AG 기념품 사고, JYJ와 사진도 찍고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관련 공식기념품이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갔다. 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는 지난달 11일 아시아경기대회 개막 D-100일을 맞아 연수구 동춘동 복합쇼핑몰 스퀘어원 3층에 '아시아경기대회 공식기념품점'을 열고 기념품 판매를 시작했다. 이곳에선 대회 마스코트인 물범 삼남매 '비추온', '바라메', '추므로'와 대회 로고를 모티브로 한 200여 종의 기념품을 판매한다.



다문화 최초 국회의원, 홍보 대사 임명

한국 최초의 다문화 국회의원 이자스민 의원이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홍보대사로 임명됐다.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는 지난달 11일 송도 미추홀타워에서 이자스민 의원을 아시아경기대회의 다문화 분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이날 이자스민 의원은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홍보대사로서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대회에 45개국 모든 아시아 나라가 함께 한다는 화합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다문화 가치를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인천AG 준비 이상 무!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송도 미추홀타워 회의실에서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경기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체육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기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자문 역할을 수행해왔다. 조직위는 위원들에게 시설배치 현황과 각 경기장별 준비사항 등 대회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준비사항을 설명했다. 이에 위원들은 각종 시설 등 경기 관련 사항을 점검해 대회를 안전하게 치를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인천AG '금·은·동'을 공개합니다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시상메달이 공개됐다. 시상메달 앞면은 개최도시 인천을 대표하는 하늘(Airport), 바다(Seaport), 정보(Teleport), 레저(Leisureport), 비즈니스(Businessport) 등 다섯 가지 요소를 연결하는 오각형의 펜타포트를 모티브로 형상화했다. 여기에 대회 엠블럼과 조화를 이뤄 개최도시 인천이 동북아 중심의 허브도시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리고 시상메달 뒷면에 시상메달로는 처음으로 한글과 영문 슬로건(Diversity Shines Here·평화의 숨결, 아시아의 미래)을 병행해 표기했다.



인천AG TV 광고, 칸 진출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TV 광고가 칸 국제광고제에 출품된다. 지난달부터 선보인 아시아경기대회 광고는 기존 스포츠 대회 광고와는 다르다. 펜싱, 레슬링, 역도를 소재로 한 이번 광고는 '가장 즐거운 아시아경기대회'라는 단일 콘셉트를 다양한 에피소드로 묶은 멀티스팟형 광고, 유머러스한 반전으로 대회를 소개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JYJ, 이봉주, 이시영 등 대회 홍보대사와 런던올림픽 펜싱 금메달리스트 김지연, 대회의 개폐회식 총감독인 임권택 감독 등의 출연으로 의미를 더했다.



국가대표가 하나되어 부르는 '온리 원'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는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단의 필승을 지원하는 뮤직비디오 홍보영상을 제작해 공개했다. 국가대표 선수들은 인기 그룹 JYJ가 부르는 아시아경기대회 주제가 '온리 원'(Only One)이 울려 퍼지는 운동장에서 울동에 맞춰 몸을 풀면서 대회의 승리를 다짐했다. 뮤직비디오 영상을 통해 기계체조 선수 양학선, 배드민턴 선수 이용대 등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 장면과 평소에는 볼 수 없던 숨은 끼를 엿볼 수 있다.



인천장애인AG 선수단장 세미나 개최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선수단장 세미나가 지난달 11일 하얏트리젠시 인천에서 개막식을 갖고 이틀간의 일정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아토 자니엘 아부자린 APC 위원장과 아프가니스탄, 중국, 일본, 동티모르 등 아시아지역 32개국 77명의 대표단, 조직위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 첫째 날에는 세미나 본회의에서 경기장, 선수촌, 숙박, 수송, 경기운영 등 분야별 추진상황 발표와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이어 이튿날인 12일에는 관계자들이 주요 경기장과 선수촌을 방문해 대회참가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했다.

후원의 밤 행사서, 대기업 관심 유도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후원의 밤 행사가 지난달 10일 오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유진롱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해 삼성·LG·KT·포스코 등 국내 27개 대기업 임원들이 참석했다. 또 블랙야크, 쌍용정보통신, 대한항공 등 대회 공식 후원사 7개 기업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조직위는 대회 총 예산 799억원 중 227억원(28%)을 각종 후원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날 행사가 기업 후원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불가능이 우리를 달리게 한다’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개폐회식 공연의 윤곽이 드러났다.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는 지난달 18일 대회 개폐회식 연출 및 운영용역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보고회는 박칼린 총감독의 연출안 설명으로 시작해, 개폐회식 대행용역을 맡은 ㈜대흥기획 컨소시엄의 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연출안 구상에 대한 자문위원회의 조언 등으로 이어졌다. 개폐회식은 ‘불가능이 우리를 달리게 한다(Impossible Drives Us)’를 주제로 기존 국제대회 개폐회식의 틀을 깨는 획기적인 무대를 선보일 계획이다.



로봇홍보단 ‘인천장애인AG 구경오세요~’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의 로봇홍보단 ‘로보티카’가 장애인스포츠를 알리는 데 적극 나서고 있다. 인천시청소년수련관 동아리인 로보티카 회원들은 지난달 14일 경인아라뱃길 시천가람터에서 열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건강걷기대회에서,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에 구경오세요~’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대회 종목을 소개하는 로봇 공연을 펼쳤다. 이날 공연에는 휠체어를 탄 로봇들이 댄스스포츠를 추며 감동의 무대를 선사했고, 회원과 로봇이 함께 북을 두드리며 선수들을 응원하는 난타 공연을 선보였다.



‘발로 서브 넣는’ 테니스 스타, 인천서 세계 제패

‘발로 서브 넣는’ 휠체어 테니스 스타 니콜라스 테일러(미국)가 2014 코리아오픈 국제 휠체어테니스대회 쿼드 단·복식을 제패했다. 테일러는 지난달 7일 인천 열우물테니스경기장에서 막을 내린 대회 마지막날 쿼드 단식 결승에서 본가니 드라미니(러시아)를 2-0(6-1, 7-6(3))으로 누르고 정상에 올랐다.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는 이번 대회를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테스트 이벤트로 지원하며, 수송·의무·도핑·전산 등 20개 분야에 인력을 투입해 현장 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회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프로농구선수들도, 인천장애인AG와 한마음

인천출신 여자 프로농구 선수들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체 ‘나눔 즐기기’가 지난달 7일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앞 광장에서 특별한 바자회를 열었다. 회원들은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을 후원하며 나눔을 실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들은 수개월 전부터 본인들의 유니폼과 운동화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바자회를 운영하기도 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온라인 바자회를 통해 모은 수익금으로 2천만원 상당의 보치아 경기용품 구입해 전달하기도 했다.

문의 : 2014 인천장애인AG 조직위 458-5383



“친구야, 게임방 갈까?”

중앙아시아 소도시 마을에서는
말 타고 마실 다니는 청소년들의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은 우리네 오토바이 같은 것입니다.
문득, 그 나라에도 폭주족이 있을까 궁금합니다.
말 위에서 태어나 말 위에서 사랑을 나누고 말 위에서 죽는
유목민의 DNA가 그들에게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 키르기스스탄 카라콜에서

글·사진 유동현 본지편집장